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

시간_ 13:00~18:00

장소_ 경민대학교 정보도서관

신청_ 이메일 접수 (acagora@naver.com)

문의_ 031-828-7166

2022.09.24 (토)

제8회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학술대회

문해력과
독서교육의
열린활동성

제8회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학술대회

문해력과 독서교육의 열린 활동성

CONTENTS

I 학회 소개	7	학회 소개	
II 기조 강연	11	교사가 마주하는 문해력 교육의 문제 상황	송승훈 (광동고등학교)
II 발표와 토론	35		
주제 발표 1	37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연구	윤수진 (송원대학교)
	55	토론문	성영화 (백석대학교)
주제 발표 2	57	고등학생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연구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권민주 (성균관대학교)
	73	토론문	이은영 (한양대학교)
주제 발표 3	75	협업 활동을 통한 글쓰기 방법 모형 연구	이정선 (호서대학교)
	97	토론문	김찬곤 (호서대학교)
IV 안내	105	원고 모집	
	109	후원	

SCHEDULE

시간	내용	담당
12:30 ~	등록	
1부 사회 : 김현경 (경민대학교)		
13:10 - 13:20	인사말	오길주 (경민대학교)
1부 : 문해력의 현장성과 독서교육		
13:20 - 14:00	기조강연 :교사가 마주하는 문해력 교육의 문제상황	송승훈 (광동고등학교)
14:00 - 14:40	논문발표1 :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 연구	윤수진 (송원대학교)
	토론	성영화 (백석대학교)
14:40 - 15:20	논문발표2 : 고등학생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연구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권민주 (성균관대학교)
	토론	이은영 (한양대학교)
15:20 - 16:00	논문발표3 협업 활동을 통한 글쓰기 방법 모형 연구 -H대학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이정선 (호서대학교)
	토론	김찬곤 (호서대학교)
2부 사회 : 안남재 (오투라인 대표)		
2부: <마당을 나온 암탉>과 함께 하는 문해력 확장		
16:20 - 16:40	문화공연	박우진 (노래하는 꿈틀이들)
16:40 - 17:40	북토크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보는 문해력의 확장	김명석 (성신여자대학교) & 황선미 (서울예술대학교)
17:40 - 18:00	학회 총회	김경희 (가천대학교)
18:00 - 18:10	총평 및 인사	오길주 (경민대학교)



학회 소개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

학회 소개 본 학회는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韓國 讀書 아카고라 學會)」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라 하며, 약칭은 「RAAK」라 한다.

(명칭 중 ‘아카고라(ACAGORA)’는 아카데미(ACADEMY)와 아고라(AGORA)를 합성한 약어로서,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성(academy)과 독서 운동의 열린 활동성(agora)을 공히 표방한 것임.)

본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계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조 강연

교사가 마주하는 문해력 교육의 문제상황

송승훈¹⁾

[목 차]

I. 문해력 관련 사회 통념과 현실

II. 교실 속 학생들의 모습

1. 독서 교육의 보편화
 - 1)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
 - 2)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영향
2. 독서 교육의 보편화로 알게 된 문제 상황
 - 1) 끈기 있게 책 읽는 힘은 약해짐
 - 2) 가정환경에 따른 학생의 독서 경험 양극화
 - 3) 점수로 동기 부여 되는 학생이 줄어들음
 - 4)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의미 구성
 - 5) 수능형 문제 풀이 학습의 저연령화

III. 결론

1)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 분과 물꼬방 회원

I. 문해력 관련 사회 통념과 현실

2022년 언론에는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따분하다는 뜻으로 쓰는 심심하다가 있고,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으로 쓰는 심심하다가 있는데, 이 둘을 젊은이들이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유튜브와 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정보를 떠먹여주는 매체에 익숙해지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낮은 수준의 문자 언어 소통을 하다 보니, 문해력이 낮아져서 걱정이라는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돌림병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임시 휴일을 정했는데, 그때 언론에 보도된 ‘사흘’이라는 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흘이 3일을 뜻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4일로 잘못 알아 들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흘간 쉬라고 했는데 왜 우리 회사에서는 4일을 쉬지 않고 3일만 쉬느냐고 따지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와서 화제가 되었지요. 이를 다루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해력이 낮아진 증거라고 여기저기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전문가 인터뷰로 나왔습니다. 실제 문해력 관련 통계에서는 젊은이들이 뛰어나고, 노년층이 부족하다고 나온다는 근거를 들면, 연구자들은 사회 통념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언론 기사로 각인된 사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몇 번 말을 해도 금방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30년 전인 1991년에도 젊은이들의 글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로 떠들썩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젊은이들이 한자를 몰라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1980년대에는 신문에도 한자가 많이 쓰였지만, 1988년에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지면을 모두 한글로 썼습니다. 1990년대에는 다른 신문들도 모두

다 한글로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자병용에서 한글전용으로 옮겨온 시기가 저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다 보니, 그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가 어떠한지를 잘 기억합니다.

1972년생인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칠판에 한자를 쓰면서 개념 설명을 하던 모습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제 또래와 저보다 젊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처럼 한자를 잘 쓰지 못합니다. 한자보다는 영어를 쓰며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뿐 아니라 세대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이제 50대가 된 저희 세대를 보고 문해력이 낮다고 하는 비평은 2010년 이후로는 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여름에 저는 몇 군데 교육청 소속 연수원에서 하는 국어 1급 정교사 연수에서 독서 교육과 글쓰기를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중 제주에 있는 탐라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연수생인 김선희 선생님이 제 책 『나의 책 읽기 수업』을 들고 오셔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 눈앞에 보이는 그분의 인상에 따라 ‘걸리면 죽는다’ 느낌이 있는 파사현정의 기세’라고 써드렸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다음 날 저에게 김선희 선생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에는 놀랍게도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보았다는 말이 웃음 표시(^_^)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교사가 되던 때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신규 교사 정원도 줄어들어서 국어과 임용 경쟁률이 30대 1이었습니다. 상위 10%인 사람들끼리의 사나운 경쟁률을 뚫고 교단에 선 젊은 교사가 문해력이 낮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파사현정과 같이 저의 세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이 젊고 똑똑한 국어 교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몇몇 한자어나 고유어를 어떤 세대가 집단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그 집단이 문해력이 낮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작은 단서에서 느낌을

받아 전체를 통찰하는 일은 때로 맞지만, 때로 틀리기도 합니다.

II. 본론

1. 독서 교육의 보편화

1)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과서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교육과정에 나온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년 넘게 말해도 2010년 초반까지 학교 교실의 수업은 조금만 바뀌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과서는 필요한 정도보다 지나치게 많이 가르쳐졌고, 수업 시간에 책 읽기는 필요한 정도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그게 한 학기 한 권 읽기입니다. 교과서 위주로 수업하는 문화가 깊이 있게 배인 한국 사회에서는 교과서 안에서 책을 읽게 하는 단원을 만들어 교과서에 묶인 수업을 벗어나고 책이 수업에 들어오게 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분절적 지식 전달 수업, 자기 삶과 너무 떨어진 내용으로 학습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기에 함께 담겼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해당이었고, 시행은 2018년부터였습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몇 개 달라지는 것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더 큰 영향을 학교 수업에 미쳤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독서 일지, 독후감, 서평, 독서 토론, 주제 탐구 보고서, 책 대화하기, 책 읽고 인터뷰하기, 독서 구술과 같은 검색어로 찾아보면 여러 교사들이 자신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블로그에 기록한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둠을 이루어 같은 책을 읽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모둠 친구들과 말이나 글 또는 카톡이

나 구글 문서나 패들렛으로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나 글 또는 피터나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자신들의 구성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독서에 한정되지 않고 말과 글과 매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교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초등학교에서는 9-12차시로 수업이 되고, 중등학교에서는 12-17차시로 수업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이 굉장히 사회 변화가 빠르다는 것인데, 독서 분야에서도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바깥의 연구자들이 학교의 문해력 교육을 살필 때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이나 자기 또래의 경험 위주로 살펴보면 실제 현실과 크게 다른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영향

그전에는 지적 사유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 위주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서로 생각을 이야기 나누고 글이나 매체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에 들어온 다음에는 특별히 지적 열정이 있지 않아도 다수의 교사들이 수업에서 책을 읽힙니다. 그전에는 수업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책을 읽히려면, 책 읽기를 하려는 교사가 같은 학년의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동료 교사를 모두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면 이미 제공된 자료로 가르치면 되어서 쉬운데, 책을 읽히면 신경 쓸 일이 많은 까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더 어려웠습니다. 중등학교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아야 3-4명이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그 학년의 교사 전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들어가고 교과서에도 책을 읽히는 내용이 나오니까 동료 설득이 쉬워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격년으로 하는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1)를 보면, 초

등학교 학생의 77.0% 중학교 학생의 63.2% 고등학교 학생의 50.9%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경험했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이 정도로 참여를 이끌어낸 수업과 평가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못한 학생의 차이도 이 보고서에 나왔는데, 한 학기 한 권 읽기 경험한 학생은 독서율이 94.2%이고, 경험하지 못한 학생은 독서율이 86.5%로 7.7%p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독서량은 1.8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수업으로 책 읽기가 더 좋아졌다고 한 학생은 42.1%였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 연구를 보면 한국 학생들은 성적은 높은데 학습 흥미도가 낮습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시를 교과서에서 배워서 시에 관심이 더 없어졌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학습 흥미 측면에서는 실패해왔는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한 학생들 중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독서에 흥미가 더 생겼다니 눈여겨볼 점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들어간 효과를 독서 동아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독서 동아리는 한 반에서 보통 2-3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한 학년이 10개 반이라고 할 때 20-30명 정도가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과목의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 그 10개 반 학생들 모두가 책을 읽게 되어 규모가 비교할 수 없게 커집니다. 한 반의 학생 수가 20-30명이니까 10개 반이면 200-300명 학생이 책을 읽게 되어, 그 규모가 딱 열 배로 커지게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10%-20%를 빼도, 독서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동아리보다 교과 수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과 교육과정에 독서 교육이 들어온 것은 학교의 문해력 교육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데 거의 모든 교사가 동의할 것입니다.

심영택의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열정에 관한 연구 - 초등교사의 온작품 읽기 수업을 중심으로」(2010)를 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면서 교사들은 자신이 진짜 교육자가 된 행복함이 든다고 인터뷰에 응답합니다. 교과서는 바깥에서 주어진 교재이지만, 책을 읽을 때는 교사와 학생이 책을 고르게 됩니다.

교과서의 해석은 보통 교사용 지도서와 사회적 관행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교과서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학습 자료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학생과 교사가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찾아보아도,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처럼 한 쪽 한 문단 한 줄 수준에까지 해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문해력 수업을 할 때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머리를 쓰고 서로 생각을 나누며 탐구를 하게 됩니다. 글의 일부를 떼어낸 교과서가 아니라 책을 읽는 공부 과정을 안내하다 보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2022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이 2022년 8월 30일에 공개되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책에 관심이 있던 초등 교사와 중등 국어 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이 사실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듣는 국민 참여 소통 채널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없애지 말고 유지하라는 글이 빗발치듯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견을 받는 2주 동안에 영어과는 55건이 올라왔는데 국어과는 1072건이 올라왔습니다. 국어과에 올라온 의견들 중 90%가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천 편이나 되는 글 중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반대하는 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격렬한 항의가 있었기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이후에 2022 국어과 교육과정에 다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생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사의 몸을 바꾸어놓았다고 하겠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그전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교사들 중 상당수는 발췌문으로 하는 짧은 호흡의 수업만 하지 않고, 제대로 책 한 권을 읽히며 긴 호흡으로 고급스러운 문해력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사 4855명이 응답한 서수현의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2019)를 보면, 교사의 76.4%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긍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독서 교육의 보편화로 알게 된 문제 상황

1) 끈기 있게 책 읽는 힘은 약해짐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 한 시간 내내 책을 잘 읽던 학생들이 2010년 중후반부터는 한 시간 동안 책 읽기를 힘들어한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학생들 손에 거의 모두 들려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조금만 지루해도 곧바로 다른 볼거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손안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거기에는 온갖 읽을거리와 유튜브와 틱톡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볼거리와 다양한 게임과 같은 놀거리가 있으니, 어른인 저마저도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낼 때 조금만 거슬리거나 화면이 늦게 뜨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러합니다. 학생을 둘러싼 매체 환경이 달라져서, 학생이 끈기 있게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 힘이 약해졌다고 봅니다. 문해력의 기본기를 기르는 책을 집중해서 오래 읽는 지구력이 확실히 스마트폰 이전보다 이후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강해진 면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해석하는 힘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면, 이야기를 예전보다 더 잘 풀어냅니다. 자기 표현력도 좋아졌습니다. 책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게 하면, 그 결과를 보고 교사들이 ‘우리가 해도 이렇게 못할 텐데, 참 잘한다.’고 말합니다. 피피티나 영상을 이용해서 발표를 할 때는 그 능숙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한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독서교육 분과 물꼬방에서는 해마다 여름에 교사를 대상으로 이박삼일로 15시간 정도 되는 대중 연수를 합니다. 올해 연수는 15개 반으로 진행되었고 무대에 선 강사는 모두 3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1명이 처음 무대에 서는 젊은 국어 교사들이었는데, 강의 전에 엄청 긴장하며 준비하더니, 막상 무대에 올라서는 전혀 떨지 않고 강의를 하나 같이 다 잘했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만

든 피피티 발표 자료도 선배 교사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행평가를 해오던 세대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니, 발표 능력이 대단히 좋아졌다고 선배 교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모두 활동을 어색해하지 않고 익숙하게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료 협력을 중요하다고 교육받아오다 보니, 소통 능력이 그전의 학생들보다 훨씬 좋아졌음을 교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의 유지 시간이 약해지고, 해석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문해력 지도 방안이 나와야 교육 효과가 높게 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교사가 교실에서 한 종류의 책을 읽혀도 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교사가 여러 종의 책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학생의 마음에 드는 책을 선택해서 독서를 하는 게 대체로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소통하기를 즐겨 하니까 혼자서 책 읽고 혼자 글을 쓰기보다 모둠에서 같은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할 때는 혼자 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글은 쓴 다음에는 그 글을 갖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고쳐 쓰기를 하고요. 말을 잘하고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정적인 글쓰기 평가와 함께 동적인 구술 평가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해야 학생들에게 호응을 더 많이 얻습니다.

2) 가정환경에 따른 학생의 독서 경험 양극화

빈곤 가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못 받는 학생일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늘 보는 교사들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열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써서 중간 중간에 정신 차려야지 하고 스스

로 생각할 정도이니까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여러 정보에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좋은 통로이지만, 성장기에 그 사용이 지나치면 대인 관계 감수성과 대면 소통 능력을 적절하게 키우고 지적 단련을 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되도록 늦게 접하게 하는 게 좋다는 자녀교육 안내가 있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이 좋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 양쪽이 모두 다 늦게까지 일하는 직업을 가진 처지라면 자녀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밤 아홉 시까지 문을 여는 식당이나 밤 열두 시까지 일하는 주점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의 가정에서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아이를 저녁 시간에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녁에 빈집에 들어가 있기가 싫어서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와 청소년들이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육사회학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사회 지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관점이 일반적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런 이론을 직접 확인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에서는 사교육에서 학교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사회학자 폴 윌리스의 『학교와 계급재생산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1977)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읽힌 책으로 유명합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학교의 양극화, 교실 안 학생들의 양극화에 대응하려면, 학교에서 괜찮은 독서 경험을 학생들 전체에게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야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들 다 잘 쓰지만, 지식과 인간의 사유가 체계 있게 정리된 책과 관련된 경험과 태도와 의욕은 가정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집에는 제대로 된 책이 몇 권 없고, 어떤 집에는

천 권 넘게 책이 있다고 할 때, 그 두 집의 아이들은 이미 공정한 경쟁에 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받는 게 정당하다는 자본주의 윤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회 지위가 그대로 세습되던 중세와 가까워지면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 논리로 보아서도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좌절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회가 불안하게 됩니다.

학교라는 보편 교육의 공간에서 학생의 문해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여 주어야만, 학생이 자기 환경을 뛰어넘어 더 나은 사회 성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문해력 교육의 핵심에는 독서 교육이 있고, 그 독서 교육은 현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말과 글을 써가며 소통하고 표현하는 통합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학생 중심 교육은 학생에게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맞추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어야 합니다. 학생이 미래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개념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학생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주는 즉각적이고 참나적인 쾌락에 지나치고 빠져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게 하고 지적인 책을 읽고 동료와 소통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학습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문해력 교육에는 경제적 양극화로 해서 생긴 사회의 분열을 막고 통합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3) 점수로 동기 부여 되는 학생이 줄어들

이거 성적에 반영돼! 이 한 마디로 수업에 집중이 잘되는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에 반영하니까 이걸 하라고 하면, ‘아 좋아요. 그러면 안 하고 점수를 안 받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성적에 반영한다고 엄포를 놓고 점수를 무기로 꺼내면 학생들이 껌뻑 죽고 말을 잘 들으

리라는 사회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학생들을 보면, 점수에 연연하는 부류가 있고 점수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학생은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점수에 자유로운 학생들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튜브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다 진로 교육이 활발해진 영향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통로가 예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온갖 직업인들이 영상으로 자기 분야의 일과 수익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진로 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수준까지 일의 종류와 연간 수익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까지 알려줍니다. 이어서 자기의 성적, 여건, 능력, 취향, 기질, 적성을 고려해서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보게까지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매년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한 결과, 학생들은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자기 미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해지면서 학생들 중에서 점수에 매이는 학생이 줄어들고, 수업에서 교사가 하라는 활동도 실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피는 분위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상위권은 점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 중위권은 점수로 동기부여가 가장 잘되는 학생들이고, 하위권은 점수를 내걸어도 별 반응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와 상관없이 점수에 덜 연연해하며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서 내적으로 의욕을 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해력 교육을 할 때도 이걸 배워서 학생의 인생에 어디에 써먹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활동 내용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문해력 교육에서 이 같은 학생들의 경향에 대한 대응에는 매력 있는 추천도서 목록,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직접 연관이 되는 수업과 평가 방법, 지금 바로 아동과 청소년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한 인간으로서 즐거움과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는 배움이 있는 내용이 필

요합니다. 현재 학교 독서교육이나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수업 시간에 하면서 학생들에게 호응을 잘 얻는 교사는 대체로 이 내용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해야 해,라는 논리에 움직이는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4)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의미 구성

많은 교실에서 학생이 책을 읽고 비윤리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고민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윤리 문제가 있는 댓글을 쉽게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앤드루 니콜의 「드론 전쟁: 굿킬」(2014)에 대한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이 영화는 전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보고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한 정신적 고통과 전쟁의 부조리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일부는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론 전쟁의 비인간적인 면을 고발한 반전영화를 보고 전쟁은 어쩔 수 없다는 댓글을 보며, 저는 잠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멈추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문학」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에 나온 단편소설의 전문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때 1970년대 분단소설로 유명한 김원일 선생의 「어둠의 혼」을 읽고 학생들이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까지 하고 온 인텔리인 아버지가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싫어서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사회 활동에 나서다가 안타깝게도 좌우 대립에 휘말려 희생당하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는 사회주의자로 나오는데, 아들의 눈으로 아버지 모습을 그려냈기에, 반공이념이 사회를 휘감고 있던 군사 독재 시절에서도 이 작품은 검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효가 중요한 가치여서 어린 아이의 눈으로는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를 좋게 봐도 괜찮았던 것

이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소설을 읽고는 ‘적당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착하고 여린 개인을 파괴시키는 폭력적인 세상을 비판하는 작품을 읽고, 학생들은 세상의 폭력성을 비판하지 않고 그 폭력적인 세상에 둥글둥글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개혁에 나서려 한 개인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조세희 선생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선택해서 읽은 학생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앞부분에서 무허가 주택을 남의 땅에 짓고 살던 가난한 난쟁이네 가족은 강제 철거를 당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기본 생존권은 다른 인권보다 우선하기에, 철거당한 난쟁이네 가족에게 재개발되어 새로 짓는 집의 입주권을 한 장 줍니다. 그리고 새 집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난쟁이네는 입주권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팝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권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던 난쟁이네는 반값에 입주권을 판 것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슬퍼하는 난쟁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딸이 업자에게 찾아가 며칠 동안 성적 행위를 당하고 입주권을 되찾아 옵니다. 업자의 집에서 나오고 한강다리에서 서울 시내를 보면서 왜 많이 배운 교양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음악가의 음악을 들으면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냉혹함과 약한 사람을 등치는 악삭빠른 사람의 비정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장면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상황은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업자는 죄가 있는가? 아니다, 원래 장사는 싸게 물건을 받아와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업자는 장사의 일반 법칙을 따랐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세를 잘 모르고 입주권을 반값에 판 난쟁이 가족의 무지함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듬 학생들이 저에게 낸 책 대화하기 보고서를 보며 잠시 가만히 그 글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그냥 채점만 하고 지나갈까, 이 학생들과 대화를 한 번 할까 고민했습니다.

독자는, 학생은 제각기 자유롭게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학생들이 한 생각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에 ‘가치의 관점을 갖고’ 끼어들어도 될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봄에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서현중학교에 독서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한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사회 문제 관련 책 읽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는 중산층 지역이라 학생들 중에서 빈곤 관련 책을 선택해서 읽은 학생들의 생각 내용이 뭔가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빈곤을 주제로 선택해서 책을 읽은 학생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책을 읽었더니 생각보다 심하게 어렵게 살고 있어서 충격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모아두어서 다행이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어 교과서에 이태준의 「달밤」이 실려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고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소설의 주제의 ‘식은 세상에는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적당히 배려하며 살자, 그 사람도 사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 소설을 다루는데, ○ㅈ○이라고 그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부족한 사람을 보고 인생이 민폐라고 굉장히 심하게 경멸하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서 교육이 학교에서 확산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해서 보편적으로 단행본 책 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독서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각한 내용의 윤리성 문제가 많은 교실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 교육, 문해력 교육을 하는 교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입니다. 생각의 다양성이야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보편 윤리에 어긋날 때는 교사가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호랑이가 없어도 세 사람이 연달아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사람이 그것

을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처럼, 학생들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비슷한 사람들이 즐겨 가는 인터넷 사이트나 가족이나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니까 바른 말을 하지만 현실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을 마주해서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공동체 윤리와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일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문해력 연구에는 윤리적 독서를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은 풍부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5) 수능형 문제 풀이 학습의 저연령화

최근 들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국어 문제에 나오는 제시문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을 읽고 문제 풀이를 훈련시키는 학원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독서 토론 학원들이 사교육 독서 시장의 주류였는데, 새로운 현상입니다.

대입 수능의 국어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에 가는 비율이 그전보다 늘어나면서, 수능 국어 문제의 형식을 초등학생에게 연습시키는 학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1, 2년 앞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수능 국어 문제 풀이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보통 백일을 넘기지 못하고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양하게 독서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 시간을 내서 수능 문제 풀이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늘 생각해왔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수능 국어 형태로 문제 풀이 연습을 계속 시키다니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걱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수업은 대다수의 학생에게 재미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학생은 거기서도 재미를 느끼지만 말입니다.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는 일부 학생들의 학습

효과는 어떨까요? 미시적 독서 이론에서 사실적 읽기라고 불리는, 글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솜씨는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비판적 읽기, 공감적 읽기, 동료와 소통하는 능력, 사유를 풍부하게 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 말과 글을 잘 다루는 능력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문해력은 글을 읽는 능력뿐 아니라 생각하고 글을 쓰는 능력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읽기와 이해, 글쓰기와 표현, 사유가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야 그게 진정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짧은 발췌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보다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수능 국어 형태로 된 짧은 글 읽기를 하는 연습을 초등학생에게 시키는 것은 그렇게 학습 효과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짧은 글에 대한 문제를 곧잘 맞춘다고 나중에 수능을 잘 볼까 하는 기대에도 저는 가우뚱합니다. 수능 국어는 현재 글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글이 나오면 높은 문해력을 기본기로 지닌 학생들이 더 좋은 점수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몸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효과가 좋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능 국어 문제 형태를 초등학생에게 되풀이해서 훈련시키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학습은 어린 초등학생들의 가능성을 일부분 훼손하고, 더 나은 성취를 얻는 데 방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의 즐거움을 깊이 있게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맞추었다는 낮은 수준의 쾌감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Ⅲ. 결론

요즘 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전보다 문해력이 낮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진지하고 무거운 글을 너무 안 읽어 문제

라는 비평이 주로 언론에서 나오는데, 겉모습만 본 둔탁한 관찰입니다.

수행평가가 도입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한 번의 시험보다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태도였는가를 평가받은 결과가 자료로 쓰이면서, 그에 따라 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학기에 한 달은 교과서가 아니라 책으로 국어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 읽고 친구와 생각을 나누고 말이나 글이나 매체로 표현하는 통합적 학습을 거치며 학생들이 그전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오래 책 읽는 지구력은 약해졌지만, 해석 능력과 소통 능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추천도서 목록과 소통이 있는 독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학생 능력의 양극화 문제가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경험을 자꾸 만들어주려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진출과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길이 훨씬 다양해져서 이제 점수로만은 다수의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교육하려면 그게 왜 그 학생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학생에게 어느 정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중 일부가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독서 의미 구성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능 문제 풀이 학습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현상은 문제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게 학생 문해력 교육은 학생을 매혹시킬 수 있는 추천도서 목록, 학생이 동료와 소통하며 재미를 느끼면서 생각을 나누는 수업 방법, 정적인 글쓰기와 함께 동적인 구술 평가가 적절한 비율로 도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부 학생에게만 고급한 독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가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같은 통합적 학습 방법이 담겨 있는 것이 학생 문해력 교육의 기반이 됩니다.

참고문헌

- 구본희, 『보니샘과 함께하는 블렌디드 수업과 평가』, 우리학교, 2021.
- 김민정, 『국어시간에 슬로리딩을 만나다』. 구름학교, 2020.
- 김병섭, 김애연, 김영희, 송동철, 이민수, 최지혜,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 서해문집, 2021.
- 김병섭, 김애연, 김영희, 송동철, 이민수, 최지혜,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 서해문집, 2021.
- 김영란 송동철 송수진 임영환,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문해력」, 『함께 여는 국어교육』 147호, 전국국어교사모임, 2022 가을.
- 김연이, 민재식, 신태용, 이혜진, 「안 해본 교사는 있어도, 한 번만 하는 교사는 없다」, 『함께 여는 국어교육』 146호, 전국국어교사모임, 2022 여름.
- 김영란. 김진영, 김현민, 송승훈, 임영환, 하고운, 『한 학기 한 권 읽기』. 서해문집, 2018.
- 김영주, 김강수, 박길훈, 윤승용, 이혜순, 장상순, 『온작품읽기』, 휴먼에듀, 2017.
- 김재광, 김진영, 김현주, 김현민, 남승림, 송승훈, 우현주, 정태운, 허진만,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서해문집, 2014.
- 김주환, 『한 학기 한 권 읽기 어떻게 할까?』, 북멘토, 2018.
- 백원근, 안찬수, 이순영, 조영수 외, 『2021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서수현,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실행 양상과 개선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13집 2호 (통권 제25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9.
- 송승훈, 『나의 책 읽기 수업』, 나무연필, 2019.
- 신수정, 이유진, 조연수, 진현, 『이야기 넘치는 교실 온작품읽기』, 북멘토, 2016.

이민수, 『함께 읽기 좋은 날』, 우리학교, 2022.
조병영,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쌤앤파커스, 2021.
천경록, 김혜정, 류보라, 『독서교육론』, 역락, 2022.
최승필, 『공부머리 독서법』, 책구루, 2018.
최지혜, 『좋아하는 것은 나누고 싶은 법』, 롤러코스터, 2021.
하고운, 『우리들의 문학시간』, 롤러코스터, 2021.

구본희 서울 관악중 <https://blog.naver.com/sarambon>
김병섭 인천 인천생활과학고 <https://dasidasi.tistory.com>
김영희 경기 천천고 <https://blog.naver.com/hehe26>
김애연 경기 관양고 <https://blog.naver.com/younibang>
노윤희 경기 장내중 <https://blog.naver.com/noh1996>
민재식 부산 낙동고 <https://blog.naver.com/sik4967>
송승훈 경기 의정부광동고 <https://blog.naver.com/wintertree91>
윤재오 강원 내면고 <https://blog.naver.com/dragon2284>
이민수 서울 삼정중 <https://blog.naver.com/frindle02>
이한솔 서울 중앙중 <https://blog.naver.com/hssoccerking>
하고운 서울 영등포여고 <https://blog.naver.com/gilly71>

초록

교사가 마주하는 문해력 교육의 문제 상황

송승훈

학교 현장에서 보는 문해력 교육의 문제 상황을 정리했다. 교육과정에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독서 교육이 대규모로 실시되면서 알게 된 학생들의 경향을 정리했다. 독서 지구력은 약해졌고, 가정환경의 차이가 학생의 독서 태도에 반영됐고, 점수로 동기부여가 되는 학생이 줄어들고, 독서 의미 생성에서 윤리성 문제가 보이고, 수능형 문제 풀이 학습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핵심어>

교육 현장, 독서, 독서 교육, 독서 윤리, 리터러시, 문식성, 문해력, 소양, 한 학기 한 권 읽기



발표와 토론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 연구

윤수진¹⁾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문제

II. 본론

1.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 2) 연구 절차
 - 3) 자료 수집 및 분석
2.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활동의 실제
 - 1) 그림책을 선정하다
 - 2) 활동을 시작하다

III. 결론

1)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문식성은 보통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광의의 의미로 보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¹⁾ 문식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읽기는 굉장히 복잡한 지적 활동으로 유아가 태어나서부터 성숙한 독자가 되어가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린다. 유아들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름대로의 문해 능력을 가지고 주변의 언어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언어를 학습해 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문식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이해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식성이 아닌 읽고 쓰는 것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문식성에 더 관심이 높다.²⁾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좁은 의미의 문식성 발달에 귀중한 교육을 해달라고 하지만 유아교육과정에서는 넓은 의미의 문식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는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문정³⁾은 넓은 의미의 문식성 정의를 토대로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Cooper와 Kiger(2002)는 ‘초기 문식성’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유아의 문식성 향상을 위해서 비형식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지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

1) 이차숙, 『초기 문식성 평가 방법 탐색』, 교문사, 2007.

2) 박연옥, 「학부모와 초등 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취학 전 유아의 문자·수학에 대한 인식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이문정, 「한글의 문자 특성에 적합한 유아 읽기, 쓰기교육」, 제 11권 1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04.

다고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문식성 지도와 관련하여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의 내용으로 제시하며, 유아들이 놀이 안에서 언어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놀이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식성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말과 글의 관계를 인식하고, 주변의 상징이나 글 등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유아의 문식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의 문식성 발달을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그림책은 그림을 통해 유아가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유아에게 책읽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매체라 할 수 있다. 그림책은 전반적인 언어 발달을 향상시켜주고 전인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유아 문식성 발달에 그림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다.⁴⁾ 선행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교육 후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아, 유아의 문식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는 알 수 없다.

2019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와 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식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교사 주도의 활동이 많아 유아가 주도하여 하는 문식성 활동의 한계를 보여준다. 유아주도의 활동을 통해서 유아는 성취감과 주도성, 책임감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읽고 쓰는 결과물에만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아 읽고 쓰는 행위자체의 즐거움을 인지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유아는 즐겁게 언어활동을 한 경험을 통해 읽고 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읽고 쓰는 것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게 된 유아는 스스로 하게 되므로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가 자발적으로 언어

4) 박나리, 「그림책을 활용한 경험중심의 책 만들기가 유아의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활동을 즐기게 하려면 문식성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문식성 발달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유아교육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연구문제

1. 그림책을 통한 유아 문식성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II. 본론

1.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와 G시에 위치한 사립유치원 만 4세 유아 12명이다. 2022년 4월, 연구 참여자 중에 5명의 유아는 글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고, 7명의 유아는 글자를 거의 읽지 못했다. 대다수의 유아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으나 3명의 유아만이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명의 유아는 자기 생각을 짧은 단어로 쓸 수 있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유아가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한 후, 활동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문식성 활동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2주 동안에는 관련된 문

현을 고찰하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문식성 활동에 대한 연구자만의 정의와 단계별 계획을 세웠다.

2022년 4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11주 동안에는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유아 주도의 문식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성화 수업시간에 교사가 그림책을 먼저 1번 읽어주고 유아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진행해 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교사는 참여 관찰을 통해 유아가 어떻게 읽고 쓰는지 기록하고 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보호자에게 연구에 참여 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참여자는 모두 가명으로 적었고 사진 자료, 활동지에 기재된 이름도 삭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13주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찰일지와 심층면담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화수업 시간에 문식성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관찰하고, 관찰일지를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현재 문식성 교육에 영향을 끼친 원인과 발달에 적합한 문식성 활동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2.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활동의 실제

1) 그림책을 선정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활동을 하고 교사의 관점으로 그 과정

을 기록하였다.

생활주제에 맞춰 그림책을 선정하여 활동을 하였다. 선정한 그림책은 다음과 같다.

5월(나와 가족)	『오늘은 나도 슈퍼영웅』
	『호랑이 형님』
	『파란 고래』
	『내 마음이 말할 때』
	『친구의 전설』
	『내가 너 꼭 떼어 버린다』
6월(우리 동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과 졸깃한 떡』
	『동네가 생기게 된 이야기』
	『파란 고래』
	『알록달록 동물원』
	『우리 동네 할머니』
	『플로라의 멋진 집』
7월(여름)	『무지개 물고기』
	『나는야 물놀이 안전박사』
	『팔방수의 전설』
	『공룡은 팬티를 좋아해』
	『수박수영장』

2) 활동을 시작하다

① 『호랑이 형님』 그림책을 읽다

2차시를 시작할 즈음 만 4세반의 생활주제는 나와 가족이었다. 유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등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호랑이 형님』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림책을

듣고 난 후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 나누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 그림책을 듣고 나니, 무슨 활동을 하고 싶나요?

지우: 호랑이 형님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현서: 호랑이 형님 엄마를 그려보고 싶어요.

민지: 저는 동물을 그려서 지난번처럼 동극놀이 하고싶어요.(2022. 05.03 관찰일지)

칠판에 유아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적어주었다.

만4세 민지는 교사가 칠판에 적어준 글을 보고 ‘동물 동극’ 이라고 따라서 썼지만 불명확한 형태였다. 만 4세 유아의 발달상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 현서는 ‘호랑이를 그려보고 시퍼요’ 라고 썼다(2022.05.03 관찰일지). 틀리게 썼지만 바르게 읽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틀린 글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읽어주고 써줌으로써 수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활동과정에서 유아들은 다른 친구가 쓴 글자를 읽어보기도 하고,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써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글자를 잘 모를 경우에는 그 글을 적은 친구가 알려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배우는 모습도 나타났다.

② 『오늘은 나도 슈퍼영웅』 그림책을 읽다

다음은, 『오늘은 나도 슈퍼영웅』 그림책을 듣고, 진행된 대집단으로 활동 예시이다.

교사: ‘우리반 슈퍼영웅’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요?

지훈: 서진이요. 저는 서진이가 슈퍼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훈: 서진이는 제가 넘어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혁: 저는 수연이요. 수연이는 제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어요.

(2022. 05.10)

③ 반성적 사고를 하다

곽향림(2019)는 대그룹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은 유아들의 놀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대집단으로 이야기 나누며 유아에게 필요한 재료, 놀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교사는 유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재료나 환경을 지원해 주며 유아의 활동을 관찰하는 촉진자, 관찰자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상황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책의 주제, 내용에 따라 유아들이 해보고 싶은 활동이 다양각색으로 나타났다.

1, 2, 3차시는 나와 가족 주제의 그림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고, 4, 5, 6차시는 우리 동네 주제의 그림책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7-11차시는 여름이라는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그림책의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여 놀이를 정하였다. 그림책을 듣고, 유아들은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눴고, 하고자 하는 활동을 생각해냈다. 그림책에 나온 놀이도 제안하였고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었다. 얼마나 유아가 유능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유아의 의견만으로도 충분히 문식성 활동을 계획, 진행 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아의 흥미와 현재 하고자 하는 놀이에 중점을 두고 놀이를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였다. 오채선⁵⁾은 유아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을 지원하려면, 놀이 계획 시 유아의 현재 발달상황에 맞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5) 오채선, 「누리과정, 놀이와 교육의 변증법적 이해」, 제 35권 2호, 유아교육학회지, 2019.

부분에 맞춰 그림책을 추가하던지, 빼던지 하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졌다. 유아의 놀이와 문식성 활동 간의 관계성이 깊어지면서 활동은 더욱더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유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하는 과정은 유아 주도적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때 교사는 지원자, 관찰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하였다.

활동을 계획하는 중 여러 번의 고민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 먼저, 문식성의 정의적인 측면을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유아가 읽기, 쓰기 활동을 즐기려면, 문식성 활동 자체에서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획부터 유아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놀이 중심으로 문식성 활동을 진행하려면, 교사가 활동을 제안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다. 교사도 활동의 구성원이므로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유아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활동을 하였다.

문식성을 길러주기 위해 ‘언어활동’을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하였다. 교사가 계획한 모든 활동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역시 고민의 대상이었다. 13차시에 걸쳐 활동을 하면서 교사는 관찰자, 지원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런 고민들은 문식성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④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변화를 보다

(1) 반복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다

가. 『동네가 생기게 된 이야기』를 읽다

처음에는 유아들의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고 『동네가 생기게 된

이야기』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시작했다. 유아들에게 “무슨 활동을 하고 싶니?” 라고 물으니, 그림책과 연관된 여러 가지의 활동을 이야기했다.

유아들이 미리 정한 활동과 재미가 지속되어 진행된 활동은 차이가 있었다. 활동은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단 활동을 함께 실행하였다. 유아의 활동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

그림책을 반복해서 들려준 후 ‘표지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그림책 내용이 길지 않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려 하였다. 함께 그림책을 읽고 난 후 표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었는데도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를 계속 갖고 있었다.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글의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졌고 반복되는 글을 잘 기억했다. 며칠 후, 동극 활동을 하기 위해 그림책을 세 번 읽었는데, 이전에 글을 읽지 못했던 유아도 읽을 수 있었다. 이는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동극에 필요한 재료를 유아들이 만든 후 역할을 정하고 자신의 대사를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극을 하기 전에 여러 번 그림책을 읽은 상황이었고 대사가 짧게 반복되어 유아들이 어렵지 않게 대사를 할 수 있었다. 박지현⁶⁾은 반복적으로 글을 읽는 것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유아는 읽기에 대해 흥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가 교사의 책을 읽는 모습을 관찰한 후, 함께 읽기를 반복하였다. 반복 읽기를 통해 점차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 많아지자 유아들의 읽고 싶은 욕구가 높아졌다.

나. 『알록달록 동물원』 그림책을 읽다

6차시에는 『알록달록 동물원』 그림책을 읽고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이야

6) 박지현,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 및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기 나누었다. 4차시에서 즐겁게 동극을 한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도 동극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아들이 제시한 활동에는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등이 포함되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극 준비로 이어졌다. 동극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고 쓰는 과정이 나타났다. 먼저 유아와 함께 그림 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대사 외우기를 어려워하는 유아는 종이에 대사를 써서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쓰기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진희: 대사가 너무 많아요. 못 외우겠어요.

교사: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연정: 말하는 거를 종이에 써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정: 책보고 글자 써볼래요.(2022.5.24 관찰일지)

몇몇 유아들은 대사를 종이에 써서 반복해서 읽었다. 또 몇몇 유아들은 교사가 말로 알려주면 따라하면서 연습했다. 대사를 연습하면서 읽기, 쓰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글자에 관심이 없던 유아도 교사에게 읽어 달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따라 읽고 외우려고 했다. 유아들은 동극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동극을 하였다. 자신의 대사가 길다고 생각한 유아들은 종이에 쓴 글을 보며 대사를 했다. 모두 맡은 대사를 잘 해내며 재미있게 활동을 마무리했다.

(2) 유아의 경험적 글쓰기를 제안하다.

여름이 가까워졌으므로 7차시에는 「나는야 물놀이 안전박사」라는 책을 유아들에게 읽어주었다. 하고 싶은 활동을 써본 후,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 속에서 다른 친구들이 쓴 활동을 읽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놀이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었다. 유아들이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말한 내용을 칠판에 적어 주었고, 적은 내용을 함께 읽었다.

말하기, 기록하기, 읽기의 단계적 과정을 통해 문어 발달을 촉진해보려고 한 것이다. 주영희⁷⁾는 유아들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읽는 것 자체에서 흥미를 느낀다고 하였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유아의 제안에 따라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다.

다음에는 물놀이를 진행하였다. 물놀이를 하는 방법, 안전규칙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읽기, 쓰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유아들이 하고 싶어 했던 물놀이를 마친 후 느낀점을 이야기 나누었다. 자신의 생각을 유아들은 말로 표현했고 느낀 점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렸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표현하니 글과 그림의 내용이 풍부하게 나타났다.

이후에는 물놀이를 한 경험을 떠올리며 수수께끼 활동을 하였다. 물놀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한 것을 칠판에 적어주었고, 칠판에 적은 내용을 유아들과 읽어보았다. 유아들은 칠판의 적힌 내용을 따라 썼고, 물놀이와 관련하여 수수께끼를 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자신들이 했던 물놀이를 떠올렸다. 문제 내는 유아도, 답을 맞추는 유아도 재미있게 참여했다.

유아의 경험을 토대로 적은 글쓰기였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어려움도 적었고, 쓰기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유아의 놀이 경험을 토대로 표현하다보니 생각의 폭이 넓어졌고 글감에 대한 고민 역시 사라졌다.

(3) 동시를 짓다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수박 수영장』 그림책을 유아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림책에는 글이 짧게 구성되어 있었고, 자주 반복되는 단어나 글이 있었다. 이런 점들은 유아가 즐겁게 그림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림책을 듣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함께 정하였다. 먼저,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바깥 활동을 했다. 그림책을 한 번 더 읽은 후 유아가 제안한 꽃, 나무 찾기 활동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

7) 주영희, 『유아언어발달과 교육』, 교문사, 2005.

왔다. 유아들은 자신이 찾은 꽃, 나무 중 일부를 수집하여 활동지에 붙이고 느낀 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유아들과 여름이 좋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 짓기 활동을 하였다. 사전 경험이 풍부해야 동시를 지을 수 있어서 먼저, 밖에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책을 한 번 더 읽는 시간을 갖은 후 동시를 짓도록 하였다. 그림책을 함께 읽는 동안 유아들은 짧고 반복되는 문장들을 기억했다. 글자를 잘 읽는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모든 내용을 읽고 싶어 했다. 그림책을 함께 읽은 후 왜 여름이 좋은지 이야기 나누고, 동시를 지었다.

(4) 철자법대로 쓰다

실외에서 몸으로 여름을 느낀 후 느낀 점을 동시로 표현해 보는 활동은 유아의 감성을 키워주어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전에는 칠판에 써진 글을 보고 따라 쓰는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칠판을 보지 않고도 써내는 유아들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글자를 못 쓰던 유아가 이제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맞춤법을 많이 틀리던 시기에 유아들이 자유롭게 쓰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철자법대로 쓰기가 나타났다.

(5) 끝말잇기를 하다

유아들끼리 끝말잇기를 하였다. 칠판에 버스, 선물, 수영, 물 등의 글을 쓰며 끝말잇기를 하였다. 다양한 어휘를 떠올리며 이를 칠판에 쓰는 놀이를 통해 쓰기가 발달하고 있었다.

(6) 유아들의 문식성 변화를 마주하다

9차시에는 『팔방수의 전설』이라는 그림책을 들려주었다. 대집단으로 책을 읽은 후 하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 하였다. 이번에는 그림책 뒷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을 하였다. 다시 그림책을 읽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때 그림책의 내용 중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부분을 함께 읽었다. 함께 읽기를 한 후 뒷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그림책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구절을 응용해서 뒷이야기를 쓴 유아가 많았다.

(7)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다

이 후 활동으로 책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교사는 유아가 원하는 책 모양 틀을 제공하였고 유아는 여름과 관련된 내용의 그림책을 완성하였다.

책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연수는 『멜론 수영장』이라는 제목을 표지에 쓰고 멜론 수영장을 그렸다. 내용에는 ‘멜론 수영장에서 어푸어푸 수영을 했어요!’라고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렸다. 수경이도 함께 활동에 참여했는데 수경이는 수수께끼 형식의 그림책을 만들었다. 수경이는 ‘포도를 찾아라’라고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렸다.

(8) 유아들의 문식성은 계속 발달되고 있다

10차시에는 그림책을 추가하였다. 유아들이 장마에 대해 관심을 갖자 이를 지원해 주고자 그림책을 추가했다. 먼저,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고 글과 그림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렇게 반복적인 읽기, 쓰기 활동은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읽기, 쓰기 놀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유아들은 문식성 활동을 통해 글자에 점차 익숙해졌고 13주차가 될 때쯤에는 글을 정확하게 읽는 유아들도 늘어났다.

Ⅲ. 결론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에 대한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그림책을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매개체로 하여 그림책을 들려준 후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유아의 흥미를 높이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유아들의 흥미를 높힐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반복읽기를 통해 유아는 즐기면서 읽는 태도를 익히게 되었다. 반복읽기는 문식성 발달에 결과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박지현⁸⁾은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그림책 읽기 활동으로 유아의 읽기 흥미가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반복해서 책을 읽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유아는 읽기를 즐기게 되었다.

둘째, 유아의 경험이 반영된 쓰기 활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표현하면 내용이 풍부해 질 수 있다. 경험적 글쓰기 활동 후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통합적인 문식성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림책을 통한 통합적인 문식성 경험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가 그림책을 읽고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대소집단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하였고 모든 활동은 언어활동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넷째, 유아중심 문식성 활동을 통해 유아 자신만의 발달 속도에 맞춰 문식성

8) 박지현,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 및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을 기를 수 있다. 읽기, 쓰기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놀이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런 성장은 읽기, 쓰기에 자신감을 주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연령을 대상으로 한 유아 문식성 활동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매체로 하여 문식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책이 문식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림책과 유아의 다양한 놀이를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식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곽향림, 「누리과정에 따른 단위유치원 교육과정설계: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제 39권 2호, 유아교육학회지, 2019.
- 박나리, 「그림책을 활용한 경험중심의 책 만들기가 유아의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박지현,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 및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연옥, 「학부모와 초등 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취학 전 유아의 문자·수학에 대한 인식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오채선, 「누리과정, 놀이와 교육의 변증법적 이해」, 제 35권 2호, 유아교육학회지, 2019.
- 이문정, 「한글의 문자 특성에 적합한 유아 읽기, 쓰기교육」, 제 11권 1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04.
- 이차숙, 『초기 문식성 평가 방법 탐색』, 교문사, 2007.
- 주영희, 『유아언어발달과 교육』, 교문사, 2005.

초록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 연구

윤수진

본 연구는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를 알아본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와 만 4세 유아 12명이다. 2022년 4월12일부터 2022년 7월5일까지 13주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반복적인 그림책 읽기, 유아의 경험을 반영한 쓰기 활동, 통합적인 문식성 활동, 개인차에 따른 유아중심 문식성 활동을 통해, 유아의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핵심어>

그림책, 문식성, 반복읽기, 통합적 활동

토론문

성영화¹⁾

연구를 진행해 준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첫째 유아기는 문식성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며, 둘째 그림책은 유아의 문식성 발달을 촉진하고, 셋째 누리과정을 기초할 때 문식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발표자는 이러한 연구자의 관점에 온전히 동의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과정에서 유발된 궁금증을 바탕으로 본 토론 글을 대신합니다.

첫째, 유아 문식성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연구자는 문식성을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으로 보고 광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좁은 맥락에서 문식성을 이해하면, 유아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유아기 이전, 즉 영아기부터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발달한다고 볼 때,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서는 읽기, 쓰기 뿐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를 포함한 광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바라본 유아의 문식성은 주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참여자인 유아의 특성을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에서는 유아의 경험을 글로 쓰고 읽기, 대본을 쓰고 읽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식성 발달을 넓게 접근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유아교사와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의 유아의 듣기와 말하

1) 백석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기 발달에 대한 변화 양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유아 문식성 발달의 변화과정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 동안 유아에게 제공된 교육적 경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그림책을 활용한 경험이 유아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두어 결과보다는 문식성 발달의 변화과정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식성 발달의 변화과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그림책을 반복적으로 읽었다고 했을 때 처음 읽었을 때와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읽었을 때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 그림책과 활동 및 놀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유아들은 생활주제를 바탕으로 선정된 그림책을 읽고 대소집단 활동 및 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동극처럼 그림책은 다르지만 동일한 활동인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을 읽은 후 진행된 활동이나 놀이에 따라 문식성 발달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그림책을 읽고, 유아가 제안한 활동 및 놀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림책을 읽은 후 진행된 활동이나 놀이가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미치는 변화의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책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놀이를 제안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토론 글을 마칩니다.

고등학생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연구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권민주¹⁾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도구
3. 연구 절차

III. 연구 결과

IV. 요약 및 결론

1)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그림책 시장은 198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등 그림책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그림책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Nikolajeva는 그림책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해 만들어지며, 이들 그림책은 이중독자(dual audience), 즉, 어린이와 어른 양쪽 수준에서 소통한다고 말하고 있다²⁾. 또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텍스트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의미를 생성시키는 소통의 담지자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독자층과 소통하며 문학, 예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층적인 해석을 고무시키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³⁾

그림책의 의미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독자가 해석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자는 화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그림책을 보는 독자의 상상과 추리와 해석이 더해져 의미를 만들어나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을 한마디로 간결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이다.⁴⁾

Rosenblatt에 의해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독자반응이론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는 문학 텍스트가 그 자체 저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Nikolajeva, 2009)⁵⁾. 다시 말해 텍스트는 언제나 열려 있으

2) Nikolajeva, M. 『그림책을 보는 눈 -그림책의 분석과 비평[How Picturebooks Work]』. (조희숙, 지은주, 신세나, 안지성, 이효원 역). 경기: 교문사. 2011, pp.48

마리아 니콜라예바, 캐롤 스콧 공저 / (서정숙 외 5역). 마루벌

3) 이연승·황지영,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이중독자 반응연구: 이수지의 ‘경계’ 그림책 3부작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Vol.38 No.5,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pp.233-258.

4) 이차숙,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에 대한 이해」,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Vol.73. 2012, pp.55-80.

5) Nikolajeva, M. (2009).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며, 해석 과정은 독자가 텍스트의 틈을 메우는 과정(Selden, Widdowson, & Brooker, 1997/2000)이므로, 독자반응이론에서는 독자의 반응, 읽기과정, 그리고 의미구성 과정 등을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한편의 책을 읽는 과정에 저자의 의도와 태도, 본문의 내용, 그리고 독자의 경험적 배경과 지식의 맥락이 상호작용하며 작용한다.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의도를 떠나 책을 읽는 독자의 해석과 의미부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차숙은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다른 텍스트들과 연관을 지으면서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 해석, 이해한다고 말했다.⁶⁾

청소년기에는 구체적 사고에 그치지 않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대상의 구체적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형식 논리에 의해 대상에 대해 사고를 전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처리시 표면단서에 사로잡히지 않고 직시적 사고가 가능하다. 정보처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보처리 전략이정교화 된다. 두 번째로 논리적 추리(logical reasoning)능력의 발달로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 사실에서 출발해서 특정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추리능력을 말하는 것이다.⁷⁾

하지만 현대의 청소년들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많은 매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매체 속에서 독자는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의미를 구성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독자의 의미 구성은 단순히 읽는 즐거움이라는 개인적인 요구는 물론 시대적 요청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⁸⁾ 읽기란 어떤 맥락을 통해 글을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바른 이해를 했다는 것은 적절한 맥락을 통해 이해했음을 의미한다.⁹⁾

literature]』. (조희숙, 지은주, 신세니, 안지성, 이효원 역). 경기: 교문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6) 이차숙, 앞의논문, 4쪽

7) 한상철 외, 『청소년지도론』, 학지사, pp. 92-94.

8) 나선희, 현은자,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의미구성 과정-자서전적 상호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1 No.1,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0, pp.131-15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독자의 의미구성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연구는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의 목적이거나, 또래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청소년 그림책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그림책의 문학적 이해와 그 잠재력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1.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에 대해 고등학생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D고등학교, H고등학교, I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9명이다. 각 1학년 5명, 2학년 3명, 3학년 1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여학생이다.

학생들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며,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체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림책 프로그램 차시에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2. 연구 도구

9) 조선희,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에 나타난 유아의 의미 구성적 반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본 연구는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연구 도구로 선정하였다.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선정한 이유는 어린이 그림책 텍스트에서는 보기 힘든 고도의 암시성(allusivity) 때문이다. 칼데콧상 선정 위원이었던 JoAnn Jonas가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의 선정 이유에서 “그의 책은 해석이 열려져 있으며 독자들도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에 해석의 가능성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전문 서평지와 인터넷 서평자들은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저자의 의도를 궁금해 한다.¹⁰⁾ 때문에 다의적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도서를 선정하였다.

3. 연구 절차

1) 연구 접근 방식과 자료 수집

연구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림책을 본 고등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녹화하여 범주화 하였다. 실험 시간은 2시간 동안 1권의 그림책을 심층적으로 보며 교사가 발문을 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2) 자료 분석

자유롭게 말하기는 책을 읽으며 보이는 독서 중 반응을 보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생 독자가 그림책을 읽으며 보이는 의미 구성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료로부터 개념을 추출하고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범주를 도출하는 개방 코딩방법(open coding)을 사용 하였다.¹¹⁾

10) 나선희, 현은자, 앞의논문 7쪽. Amazon, The Horn Book Magazine, Publishers Weekly, School Library Journal, Aladin 등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전문가 서평을 참고함.(제인용)

Ⅲ. 연구 결과

1. 캐릭터 분석 및 비판

1) 작은 물고기

수진: 큰물고기가 작은 모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작은 물고기니까 작은 모자를 가지고 와서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작은 모자가 큰 물고기에게는 어쨌든 큰 존재, 큰 물고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울린다고 해서 모자를 가지고 숨어버린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서윤: (모자를)훔치는 건 잘못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모든 상황이 좋게만 흘러갈까라는 이상한 착각속에 빠져서 행동하는 걸 보고 작은 물고기는 멍청하고, 윤리가 없는, 도덕성이 없는 물고기라고 생각했어요.

혜란: 작은 물고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가재가 ‘나는 니가 어디로 가는지 말 안할게’ 라고 했지만 그런 가재를 그냥 믿어 버리는 모습에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지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성격이구나를 느꼈어요.

작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내었다. 큰 물고기의 모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작은 물고기가 단순히 자신의 모자를 어울린다는 이유로 가져갔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작은 물고기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동시에 작은 물고기의 성격까지 유추하였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격인 동시에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없고, 멍청하다고까지 이야기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상응하는 반응도 나왔는데 다음 반응이었다.

성수빈: 용기가 있다? 덩치가 훨씬 큰 친구한테서 모자를 뺏어올 용기.(웃음)

11)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V. 아카데미프레스. 2017

작은 물고기에게 용기가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무모한 행동을 한 작은 물고기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였다.

2) 큰 물고기

서윤: 저는 처음 드는 생각은 자신의 덩치와 맞지 않는 너무 작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자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안 것을 보고 둔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저지 찾아보고 개한테 물어 보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똑똑한 것 같아요.

아영: 큰 물고기는 자기가가지고 있는 어찌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작은 물고기를 따라간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큰물고기가 한 행동은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후에 작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웃음)

박수빈: 저는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게 왜 작은 모자만 고집하는지 이해가 살짝 안됐어요. 다른 모자도 많을 텐데...

성수빈: 제가 만약 큰 물고기 였다면 작은 물고기가 한 행동을 용서해 줬으리라 생각해서, 우선 본인한테 모자가 맞지 않고, 작은 것이니까 좀 더 맞고 필요한 작은 물고기가 가져간 그 행동을 그냥 큰 물고기가 이해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량으로.

큰 물고기에 대한 반응은 덩치에 비해 작은 모자를 쓰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 귀여운 성격일 것이라는 관점과, 큰 물고기에게 맞지 않는 모자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인물에 대하여 심미적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큰 물고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는데, 작은 모자를 고집하는 큰 물고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만약 자신이라면 작은 물고기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작은 물고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끝의 장면에서 큰 물고기의 행동이 과한 처사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가재

혜란: 계속 이 이야기에서 큰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가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가재는 거짓말을 한 나쁜 아이가 되는 거지만, 물고기 사회에서 제 3자 라던가 큰물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이 그림책에서 가재는 작은 물고기의 위치를 큰 물고기에게 알려주는 역할로 나온다. 가재에 대한 반응은 두 반응으로 나뉘었는데, 작은 물고기와 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는 입장과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 되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정의를 언급한 의견에 다들 동의 하였다.

2. 그림책 장르에 대한 궁금증

나린: 저는 그림책 분위기가 좀 무섭다고 느껴졌고요.

교사: 오 좀 무섭게 느껴졌구나, 다들 고개를 끄덕이네?¹²⁾

성수빈: 일단을 그림책의 색감이 많이 없잖아요. 흑백 위주로 색감으로 있어서 일반적인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랑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림책은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책은 평소에 봐 왔던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영: 저는 그 그림 있잖아요? 큰 물고기 그림

교사: (화면공유) 보면서 얘기해도 되요.

아영: 눈 동그렇게 뜨고 있는 다음 장에

교사: (화면공유)

아영: 네. 그거 조금 눈이 살짝 어린애들이 봤을 때, 좀 게슴츠레 해가지고 좀 더 귀엽게 그럴 순 없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해초 속에 작은 애가 숨었을 때 옆에서 좀 쳐다 보고 있는 장면에서

교사: (화면공유)

아영: 꼭 잔혹 동화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림책을 읽고 나서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중 그림책의 분위기와 장르에 대한

12) 줌(ZOOM)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볼 수 있었다.

궁금증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보통의 그림책의 분위기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여야 하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기준에서 Klassen의 그림책에서는 무채색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의 결말 고성에 히치콕의 영화 『싸이코』가 영감을 주었다고 밝힌 인터뷰와 같이, 학생들이 느낀 공포나 잔혹동화를 떠올리는 건 당연하다¹³⁾ 작가가 의도한 의도를 정확히 느끼고 기존의 그림책과 비교하는 모습, 아동의 그림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림책 자체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림책의 등장인물의 눈동자를 통해 잔혹동화 같다는 표현은 의미구성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책을 읽을 때 인물의 눈동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며 그 그림책에 담긴 눈동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림책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¹⁴⁾이라는 김상한(2020)의 그림책 의미구성과정과 일치한다.

다른 부분으로는 연출에 대해 이야기한 학생이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혜란: 작은 물고기라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잡기 위해서 한 ‘노력’이라던가 작은 물고기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작은 물고기가 죽었을 거야’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연출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는 Klassen이 말한 영화 『싸이코』¹⁵⁾의 연출기법을 참고하여 표현한 것을 독자가 정확히 읽어 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3. 아동을 빚댄 캐릭터

민지: 철이 없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하는 아이 같았어요.

13) Klassen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Psycho’의 또 다른 부분은 주인공이 죽은 후 영화에 담긴 기묘한 침묵이다.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고 영화가 계속 흘러가는데도 그녀가 사라진 지금은 묘한 공허함이 느껴진다. 책이 끝나기 전에 3번의 독백으로 끝내는 발상은 ‘사이코’에서 나왔다. -인터뷰 내용 번역

14) 김상한, 「시각적 사고를 활용한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 방안-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한국초등교육』, Vol.31 No.2, 2020, pp.135 - 150

15) 영화 ‘Psycho’에서 주인공은 폭우 속에서 차를 몰고 도망을 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모텔 주인에게 살해 당한다. 살해 장면은 직접적인 묘사 대신 욕실 개수구로 피가 흘러가는 장면 묘사로 주인공이 죽었음을 암시한다.

채영: 도덕성 없는 아기 같았어요. 책을 통해 어린이가 잘못을 알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영: 작은 물고기는 아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원하니까 빌려갈 생각도 안하고 그냥 가져가고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사회에서 힘든 것을 느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작은 물고기의 모습을 아동으로 빗대어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의 미성숙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작은 물고기를 아동, 큰 물고기를 성인으로 인지하고 분석함으로써, 책을 통해 아이들이 잘못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은 어린 독자의 의미구성까지 유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림책 속 사회 투영

혜린: 거짓말을 먼저 하는 사회가 이미 되어있다는 느낌. 그림책으로 나온다는 건 일단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일단 하고보는, 그런데 사회가 돌아가는 게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먼저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채빈: 우리사회의 무책임한 면들을 표현한 그림책 같아요. 가져가 놓고 ‘안들킬 거야’라고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책임감 없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에서 우리 사회의 무책임함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박수빈: 어, 저는 작은 물고기만 봤을 때 진짜 약간 좀 모지라고 순진한 아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런 순진한 아이가 살아가는 데에는 믿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영: 세상의 믿을 사람 없다. 큰물고기가 생각했을 때 작은 물고기가 자기 모자를 훔쳐갔으리라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고, 작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가재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배신을 한 거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림책에서 사회를 투영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반응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중 위의 내용은 일부이지만 사회의 거짓말, 무책임함,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책에서 의미하고 있다

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그림책의 어두운 이면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믿을 사람이 하나 없다’와 같은 내용은 사회에 대한 신의를 잃어버린 사회적 비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그림책에 대한 고등학생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의미구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존 클라센의 그림책,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에 대한 고등학생의 반응을 수집하고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이 그림책을 어떻게 향유하고, 의미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림책을 고등학생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수집했다. 그림책 읽기는 작가의 생각이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사회적인 맥락과 독자가 함께 어우러져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고도의 인지적 활동이다. 따라서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은 여러 가지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읽기 결과를 드러낸다.¹⁶⁾

고등학생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보여준 의미구성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에 대한 분석 및 비판으로 그림책 속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의미구성을 먼저 하였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개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제시 하였는데, 그 중 작은 물고기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과 윤리의식, 이기적인 성격까지 유추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큰 물고기에 대하여 심미적 관점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생김새에 대하여 이야기한 캐릭터는 큰 물고기가 유일하다. 또 대부분 큰물고기가 마지막에 자신의 모자를 되찾아 나오는 모습에 대해 옳은 행동이라는 지배적 의견과 달리, 작은 물고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과정에서 큰물고기의 행동이 과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에 대한 캐릭터에는 작은 물고기에게는 신의를 잃어버린 ‘고자질’이었지만 사

16) 이차숙, 앞의논문, 9쪽

회 구성원으로써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둘째, 그림책 장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의미구성으로써 그림책 전반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작가는 영화 ‘싸이코’가 영감을 주었다고 밝힌바 있다. 때문에 어둡고, 잔혹동화와 같은 분위기와 장르에 대한 해석은 작가의 영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라 할지라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아동을 빗댄 캐릭터로 작은물고기 캐릭터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이 저지할 수 있는 행동(거짓말, 도둑질)등에 대해 미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어린 독자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예측하고, 더 나아가 작가의 의도를 확장해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그림책 속 사회 투영을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말하고자하는 부분을 유추하거나, 메시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은 아직 성인 독자가 아니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써는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모습의 인과 관계에 있어서 사회의 불합리성, 부조리함 등을 파악하고, 이를 메시지화 하는 과정은 유의미한 과정이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고등학생의 그림책 읽기 활동이 단순한 읽기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활동이라는 것, 고등학생의 그림책 읽기활동이 즐거운 문학적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가져야 할 덕목이나, 올바른 사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나 어린 독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여러 의미로써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사고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그림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탐색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모습에서 복합양식 매체로써 그림책이 얼마나 훌륭한 ‘매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참고문헌

- 김상한, 「시각적 사고를 활용한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 방안-‘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한국초등교육』, 제 31권 제2호, 2020,
-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V』. 아카데미프레스. 2017.
- 나선희, 현은자,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의미구성 과정-자서전적 상호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0.
- 이연승·황지영,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이중독자 반응연구: 이수지의 ‘경계’ 그림책 3부작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38권 제5권,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 이차숙,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에 대한 이해」,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제73호, 2012.
- 조선희.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에 나타난 유아의 의미 구성적 반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한상철 외, 『청소년지도론』, 학지사, 2008.
- Nikolajeva, M. 그림책을 보는 눈 -그림책의 분석과 비평[*How Picturebooks Work*]. (조희숙, 지은주, 신세니, 안지성, 이효원 역). 경기: 교문사. 2011.
- Nikolajeva, M.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literature*]. (조희숙, 지은주, 신세니, 안지성, 이효원 역). 경기: 교문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2009.
- Rosenblatt, L. M.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김혜리, 엄해역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전은 1994년에 출판), 2008.
- Selden, R. 현대문학이론[*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윤홍로, 이유섭, 이병규 역). 서울: 백의. (원전은 1985년에 출판). 1995.
- Selden, R., Widdowson, P., & Brooker, P. 현대문학이론개관[*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정정호, 윤지관, 정문영, 여

건중 역). 서울: 한신문화사. (원전은 1997년에 출판), 2000.

<사이트>

<https://picturebookmakers.com/%20post/152596041611/jon-klassen> 2016,11,1

초록

고등학생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연구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권민주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고등학생 독자가 읽었을 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함께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그림책 속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인 의미를 구성 하였다. 둘째, 그림책 장르에 대한 궁금증 및 전반적인 그림책의 분위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였다. 셋째, 아동을 빗댄 캐릭터로 작은 물고기 캐릭터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미성숙한 모습을 발견, 이를 통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넷째, 그림책 속에서 현대사회를 투영함으로써 작가가 독자에게 말하고자하는 부분을 유추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핵심어>

그림책, 고등학생, 의미구성, 독자반응, 해석

토론문

이은영¹⁾

이 논문은 고등학생이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독자의 의미구성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수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보는 책으로 취급받던 그림책이 어느새 성인도 함께 즐기는 문학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시각을 자극하는 미디어의 발달로 글과 그림이 결합된 그림책을 쉽고 편하게 느끼는 독자들이 많아진 까닭이라고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그림책 작가의 해외 수상은 우리나라 성인들과 각종 매체에서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야말로 그림책은 1세부터 100세까지 각자의 시선으로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에 관한 독자 반응 연구는 특정한 목적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많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연구는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의 목적이나, 또래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오로지 ‘독자 반응’ 그 자체에 집중한 본 연구는 국내의 청소년 그림책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그림책의 문학적 이해와 그 잠재력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시도였다고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영화, 그림, 소설 등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정답이 없다. 그저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할 뿐이다. 이처럼 그림책을 예술 작품 그 자체로 바라보았다는 시선이, 바로 이 연구의 핵심이자 함의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아직도 그림책을 교육적 도구에 한정하는 많은

1)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과 석사 재학 중

연구들에 반해, 그림책으로 꼭 무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자신의 시각으로 감상해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글과 그림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저자의 숨은 의도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지는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9명이라는 적은 수의 연구 대상이다. 둘째, 연구 대상이 모두 여자라는 성별의 특수성이다. 연구 대상의 성별을 고르게 선정해서 살펴본다면 더욱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저자의 일방적인 질문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토의한다면 더욱 자유롭고 풍성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업 활동을 통한 글쓰기 방법 모형 연구

- H대학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

이정선¹⁾

[목 차]

I. 머리말

II.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의 상관관계

1. 협업 활동 수업 설계와 운영
2. 협업 활동 및 학습자별, 항목별 주요 지표 분석
3. 협업 활동과 개인 글의 상관성

III. 맺음말

1)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

I. 머리말

대학 글쓰기 교과는 2000년대 이후 각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룬 교과중 하나이다. 대학은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이수할 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심화형 글쓰기 수업 등을 선택 과목으로 설강하거나, 글쓰기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여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글쓰기 클리닉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해 첨삭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마다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의 결과에 대한 가시적 성과만 바라는 조급성 때문에 교과목 존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글쓰기는 단기간에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학습자마다 강좌를 수강한 뒤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 글쓰기의 역할은 학습활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으로써 학습자들의 대학 생활을 돕고, 나아가 이들이 평생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가 된다.

본 발표는 H대학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서 시행하는 “협업역량강화 토론과 글쓰기”에 대한 모형과 그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교과목은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전달하는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글쓰기를 중심으로 협업을 통한 의사소통능력과 창조적 사고력과 비판적 분석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협업역량강화 토론과 글쓰기”는 학기 동안 특별주년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수업이다. 이 기간 동안 학습자는 조별로 활동을 하여 조별 결과물(문장식 개요작성- 주장형, 반박형 구성)과 개인별 글쓰기 결과물을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발표는 2022학년도 1학기에 수강했던 1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다.²⁾ 먼저 조별 활동 및 개인별 결과물을 항목별로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했

2) 발표자는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동안 본 교과목을 5개 반을 맡아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

다. 그리고 개인별 결과물을 조와 상관없이 항목별로 점수화하고, 이를 조별 활동의 결과물과 대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협업 활동과 개인별 글쓰기의 상관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협업 활동과 관련한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수업 사례와 설문을 통한 분석³⁾이나 ‘합평’과 ‘공동작가 글쓰기’를 통한 협력학습의 방법⁴⁾을 제시하였다. 또한 쓰기 전 활동과 글쓰기 능력의 상관성을 평가한 경우⁵⁾도 있었다. 윤재연과 송주현이 수업을 설계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거나 설문을 통한 학습자들의 성취도 등을 분석하였다면 박성민과 배보은은 실제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차이를 보였다. 본 발표는 박성민의 연구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쓰기 전 활동이 개인별로 진행한 것과는 달리 본 발표는 이를 협업 활동으로 진행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발표를 통해 협업 활동이 개인별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별 글쓰기 능력이 협업 활동에 작용하는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글쓰기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의 상관관계

1. 협업 활동 수업 설계와 운영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은 1주에 2시간, 2학점으로 한 학기에 30시간을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이다. 이중 협업 활동은 H대학교 더:함교양대학에

과 이번 발표에 제시된 모델 반과 나머지 반들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임의로 1개 반을 모델로 삼았음을 밝힌다.

- 3) 윤재연,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 H대학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5, 국제어문학회, 2020. / 송주현, 「소그룹 활동 중심 대학 글쓰기 수업 사례연구- 한신대학교 ‘글쓰기의 기초’ 수업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1, 중앙어문학회, 2017.
- 4) 배보은, 「대학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 과정 중심 글쓰기 협력학습을 바탕으로」, 『돈암어문학』 37, 돈암어문학회, 2020.
- 5) 박성민, 「쓰기 전 활동과 글쓰기 능력의 상관성」, 『돈암어문학』 35, 돈암어문학회, 2019.

서 기초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역량 기반의 균질화된 교육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도 이런 취지에 맞게 설계하여 3주 동안(9~11주차)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1교시가 50분 수업임을 감안할 때 주차별 2교시로 진행되는 이 활동은 주차별 100분이다. 그러나 수업의 시작과 마무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한 주당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은 90분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은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요약한 것이고, [표 2]는 [표 1]의 ‘활동 구성’ 부분을 주차별로 구체화 한 것이다.⁶⁾

[표 1]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활동 개요

	내용	비고
운영방법	모둠 활동	
수업 주차	총 3주	- 3주 연속 진행 - 전체 15주차 수업 중 9주차 이후로 구성
시간	100분 / 주	- 주차별 2교시, 교시당 50분
활동 구성	1. 모둠 구성 및 모둠별 찬/반 팀 구성 2. 팀별 토의 및 찬반 토론 3. 개요 작성(조별 공통 개요서작성) 4. 글쓰기 (개인별) 5. 평가와 마무리	- 페들렛 형성, 활동지 배포 및 작성
성적반영	10점	

[표 2]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주차별 활동 내용

6) 이에 대한 내용은 H대학에서 운영하는 협업 활동이며, 일찍이 협업 활동에 대한 설계를 하고 글쓰기 수업방안을 제시한 윤재연 교수의 논문에 원론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윤재연, 앞 논문, 181~182쪽.

주	내용	세부사항	시간	비고
1	모둠 구성 및 토의	8개 정도의 논제 제시 후, 투표를 통한 논제 선정	10분	페들렛 형성, 활동지 배포
		조별 토의 및 내용 생성 - 주장형 개요작성	90분	
2	찬반토론 및 공동개요 작성	토론방 개설로 찬/반 한팀씩 참여하여 쟁점별 질의 및 응답	50분	활동지 배포
		토론자료 참조, 개요 내용 보충	50분	
3	글쓰기, 평가	-개인별 글쓰기	50분	원고지 준비
		-활동평가와 마무리	50분	

[표 2]에서 보듯 이 활동은 1주차에 조별로 협업을 통해, 주제에 대한 주장을 담은 조별 개요(일명 “주장형 개요”)를 작성하고, 2주차에 상대팀과 토론을 통해 상대팀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요(일명 “반박형 개요”)를 작성하게 한다. 3주차에는 이들 개요를 참조하여 개인별 글쓰기를 실시한다. 이때, 발표자가 수업시간에 시도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페들렛(Padlet) 활용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매주 2시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시간은 강의실에서, 1시간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에서 페들렛 활용은 조별 활동의 내용을 교수자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밖에 학습자들 간에도 보이지 않은 경쟁을 할 수 있었고, 상대팀의 내용도 참조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팀마다 학습자들의 협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페들렛을 이용하여 작성할 때에는 참고할 내용을 비고란에 [표 3]과 [표 4]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 참고토록 했다.

[표 3] : 주장형 구성

- 조 이름 : / "찬성" 또는 "반대"표시
- 자기 조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제시
 - 출처표기방법 : 근거(필자, 연도, 글제목, 발행처, 쪽수)

[표 4] : 반박형 구성

1. 상대팀의 주장
2. 이에 대한 반론
3. 상대팀의 재 반론
4. 이에 대한 재 반박

개요는 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항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을 쓰기 전에 구상을 조직화 하는 단계로 글의 전개를 짜임새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학습자들은 이미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과 관련한 이론 수업에서 ‘개요’와 관련한 내용을 학습한 상태다.⁷⁾ 그렇더라도 개인별 이해 수준과 글쓰기 능력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개요 작성을 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선 개요 작성 수업에서도 개인별 과제보다는 협업을 통한 임무 수행을 하다보니,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 개요 작성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협업 활동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개요지에는 크게 주제문, 서론, 본론, 결론을 쓰도록 했다. 개요 작성⁸⁾은 화제식 개요보다는 문장식 개요를 요청했다. 화제식 개요는 소수의 단어 조합만으로 핵

7) 개요와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 예시와 문제풀이, 페들렛을 통한 공동개요 작성 연습 등으로 학습자는 1차적인 개념 정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업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개요를 작성하는 데 일정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유무와 실행에서는 학습자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요 작성시 협업 활동은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장점때문에 H대학에서는 협업 활동으로 개요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시행하는 글쓰기 경진대회에서도 이런 협업 활동으로 순위를 정하여 포상을 하고 있다.

8) 개요 작성의 두 가지 방식과 반박형 구성은 H대학의 교재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따랐다. 김향 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에이치북스, 2021. 90~98쪽 참조.

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문장력이 요구된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화하게 정리할 경우, 개요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단락별로 한 문장의 소주제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요를 구성하는 소주제문만 읽어 보아도 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별 활동 실례



2. 협업 활동 및 학습자별, 항목별 주요 지표 분석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글쓰기 평가는 글쓰기 학습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글쓰기 평가에서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있을 수 없다. 평가자의 평가에도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특정한 글쓰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단정할 수는 없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평가의 성취

9) 정희모, 『글쓰기 평가에서 객관-주관주의 대립과 그 함의-』, 『우리어문연구』37집, 우리어문학회, 2010, 219쪽.

수준과 글쓰기 능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글쓰기 평가의 성취 수준에 따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글쓰기 평가 성취 수준에 상관없이 글쓰는 능력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글쓰기 평가에 대한 성취도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어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협업 활동을 하면서 평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는 협업 활동을 통해 도출한 공동개요에 대한 것이고 [표 6]은 개인별 글쓰기에 대한 기준표¹⁰⁾이다.

[표 5] 공동개요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기준	배점	세부 사항
완결성	6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는가?
타당성	6	제시된 이유와 근거가 주장에 부합하는가?
근거의 객관성	4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적절성	4	‘개요’의 성격에 부합하는 요약적 제시가 잘 이루어졌는가?

[표 6] 개인별 글쓰기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기준	배점	세부 사항
주제의 명확성	5	주제문의 올바른 형식을 갖춘 주제문을 작성하여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문단의 형식	5	문단을 제대로 구분하여 썼으며, 각 문단의 분량이 균형이 잘 맞는가?
정확성	10	어법에 맞는 정확하고 바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연결성	10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이 매끄럽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타당성	15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로써 주장을 타당성 있게 입증하였는가?
분량의 적절성	5	정해진 분량을 지켰는가?

10) 이 평가표의 내용은 H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시행하는 <협업역량 강화활동 경진대회>에서 사용한 것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중시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학교 행사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학기에 평가 대상으로 삼은 학과는 식품영양학과로 대부분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글쓰기 능력도 다른 반에 비해 우수한 편이었다. 이 반에서 4명이 <협업역량 강화활동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입상을 할 정도로 이 반은 적극적인 분반이었다. 이 반은 25명인데 협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학기 초에 이름과 성별만 가지고 6개팀을 구성하였다. 5조에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는 4명씩 조원을 할당하였다. 이 반에 주어진 주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군복무 면제”에 대한 것이었고, 이를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조별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3조, 4조, 6조가 “이들의 군복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찬성측을 맡았고, 1조, 2조, 5조가 “이들의 군복무 면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주차에 주장형 공동개요를 작성하고, 2주차에는 3조-1조, 4조-2조, 6조-5조가 팀을 이루어 자유 토론을 하였다. 찬성/반대 팀별로 상호 토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들을 마련했다면, 조별 토론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논리에서 빈약한 점을 찾으려 하며,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토론이라고 했지만, 그 절차는 엄격한 토론형식(입론-교차조사-반론-마무리)을 따르지 않고 다소 느슨하고 자유로운 방식을 택했다. 이번 협업 활동에서 행하는 토론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토론의 방식을 간단히 안내하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토의와 토론 과정은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혼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생각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팀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폭이 혼자 고민할 때보다 확장되는 기회가 얻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3주간에 걸쳐 협업 활동을 하고, 모듬별 개요와 개인별 글쓰기를 받아서 [표 5]와 [표 6]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였다. 특히 [표 6]의 경우는 과제를 제출한 순서로 평가

를 하였고, 이름 대신에 번호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에 속한 조를 부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조별, 개요작성 항목별 점수

조	평가 기준	완결성	타당성	근거의 객관성	적절성	합계	순위
	배점	6	6	4	4	20	
1		6	6	4	4	20	1
2		5	3	3	2	13	5
3		5	6	4	2	17	3
4		3	3	3	2	11	6
5		5	6	4	2	17	3
6		6	6	4	3	19	2

[표 8] 개인 글쓰기, 항목별 점수

조	평가 기준▶	① 주제의 명확성	② 문단의 형식	③ 정확성	④ 연결성	⑤ 타당성	⑥ 분량의 적절성	합 계	순 위
	배점▶								
	학생	5	5	10	10	15	5	50	
1	1번	5	5	10	10	15	5	50	1
5	2번	5	3	10	9	15	5	47	6
4	3번	5	3	10	8	12	5	43	12
3	4번	5	5	10	10	14	5	49	2
4	5번	5	5	8	8	14	5	45	11
1	6번	5	3	10	10	15	5	48	4
2	7번	3	5	8	8	12	5	41	14
6	8번	5	4	10	9	15	5	48	4
1	9번	5	3	8	10	15	5	46	8
6	10번	5	5	10	10	14	5	49	2

3	11번	5	3	7	8	10	5	38	18
6	12번	5	3	10	9	14	5	46	8
2	13번	3	3	7	8	12	5	38	18
2	14번	3	5	7	7	13	5	40	15
1	15번	5	3	10	8	13	5	44	12
3	16번	5	5	10	9	13	5	47	6
2	17번	3	5	8	8	12	4	40	15
6	18번	5	5	8	10	12	5	45	10
4	19번	3	3	8	8	12	5	39	17
5	20번	3	3	8	6	10	5	35	21
5	21번	3	3	10	6	10	5	37	20
합계		89	82	187	179	272	104	913	
<평균>		4.2	3.9	8.9	8.5	13	5	43	

[표 7]의 조별, 개요작성 항목별 점수를 보면 최고 20점에서 11점까지 조별로 편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점과 19점을 얻은 1조와 6조에 A등급을 부여하였고, 17점을 얻은 3조와 5조에 B등급을, 13점과 11점을 얻은 2조와 4조에 C등급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4조의 경우는 출처를 확인해보니 특정 자료를 발췌하여 전문을 도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최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조원들이 함께 의견을 소통하며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임의로 자료 전문을 사용한 것이라 협업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등급을 받은 1조와 6조는 4명 전원이 매 수업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에 3조와 4조는 1명이, 5조는 2명이 수업에 불참하여 각각 3명만이 협업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토요일에도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였는데, 이때도 참여 여부를 통해서 협업 활동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조원이 열심히 협업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로도 이어진다는 것임도 알 수 있었다. 4개의 항목 중 가장 변별력을 가져 온 것은 “적절성”이다. 개요의 성격에 부합한 요약적 제시가 잘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이었다. 1조와 6조가 4점과 3점을 얻어 2점을 얻은 다른

조에 비해 우수하였다. 이는 단락별로 소주제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와 출처를 통해 요약 제시한 반면, 다른 조의 경우는 소주제문의 요건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출처는 밝히고 있지만, 거기에서 도출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완결성”에서도 1조와 6조는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뛰어났다.

개인별 글쓰기는 ①번의 “주제의 명확성”~ ④번의 “연결성”, ⑥번의 “분량의 적절성”은 개인의 능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⑤번의 “타당성”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협업 활동의 결과물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표 7]에서 “타당성”과 “근거의 객관성”의 항목에 해당한다. [표 8]의 “타당성”의 점수는 10점부터 15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를 조별로 분류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개인별 글쓰기 “타당성” 점수 분포도

조 \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0점	합계
1	3		1			4명
2			1	3		4명
3		1	1		1	3명
4		1		2		3명
5	1				2	3명
6	1	2		1		4명
합계	4명	4명	3명	6명	3명	

15점 만점을 받은 학생은 총 4명으로 1조가 3명, 5조와 6조가 각각 1명이었다. 14점은 4명으로 6조가 2명, 3조와 4조가 각각 1명이었다. 최소 14점 이상을 얻은 학생은 1조에 3명, 6조에 3명인 반면 3조, 4조, 5조가 각각 1명이 있었다. 이는 협업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은 1조와 6조에 속한 학생들이 개인별 글쓰기에도

협업 활동의 결과물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표 8]에서 합계 점수와 순위에서도 드러난다. [표 10]에서 보면 전체 35점에서 50점까지 개별 글쓰기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표 7]에서 조별, 개요작성의 순서에서 A등급을 받은 1조의 조원들은 각각 50, 48, 46, 44점을, 6조의 경우는 49, 48, 46, 45점을 얻었다. B등급을 받은 3조는 49, 47, 38점을, 5조는 47점, 37, 35점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2조는 41, 40, 40, 38점을 4조는 43, 43, 39점을 획득했다. 이런 사실에서도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는 명확하게 연관성이 증명되고 있다.

[표 10] 개별글쓰기 총점 및 조별 분포도

조 \ 점수	50	49	48	47	46	45	44	43	41	40	39	38	37	35	합계
1	1		1		1		1								4명
2									1	2		1			4명
3		1		1								1			3명
4								2			1				3명
5				1									1	1	3명
6		1	1		1	1									4명
합계	1 명	2 명	2 명	2 명	2 명	1 명	1 명	2 명	1 명	2 명	1 명	2 명	1 명	1 명	

3. 협업 활동과 개인 글의 상관성

협업 활동은 개인별 글쓰기에 얼마나 관여하는 것일까? 이는 앞 절에서 보았듯 이 둘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에도 조별 개요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첨가시키기도 하고, 확대해석 및 추론까지도 가능하였다.

다음은 앞서 [표 8]의 1번 학생의 개인 글쓰기이다.

주제문 : 연예인들의 군 면제는 뜬 구름 잡는 소리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세계적인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이에따라 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고 국위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군 면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이유들로 군 면제를 진행할 경우 국가적 손실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의 파장은 군대까지 미친다. 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면제는 전쟁 발생 시, 대처하지 못한다. 하지만 ②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저출산 문제와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면제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과연 국방부도 같은 시선일까? 그렇지 않았다. 국방부 또한 작년 인터뷰를 통해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면제를 병력 부족과 연관시켜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현재로서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면제를 정부에서도 달갑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나는 ③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군 면제가 시행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본래 그들의 직업의 목적성에는 ‘국위선양’이 아닌 ‘돈벌이’와 ‘인기’가 놓여져 있다. 이러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그들의 군면제는 국가가 물질만능주의에 앞장서는 것이라 본다. 세계적으로 돈이 많고 인기가 많으면 목적이 달라도 군 면제를 해주는 국가가 올바른 것일까? 나는 국민들 스스로도 ‘국위선양’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위의 글은 ① 상대측 주장(“국위선양한 대중예술인 군면제”)에 대한 반박(“국가적 손실 야기”)과 ② 상대측 주장(“저출산문제로 군 면제와 무관련성”)에 대한 반박(“국방부의 견해”), 이어서 ③ 나의 제언(“군 면제 시행시 사회적 문제 도래”)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 글은 ①번의 경우 # 별첨 1의 ‘주장형 개요 본문 2’의 내용을 ②번은 # 별첨 2의 ‘반박형 개요 본문 1’을 ③번은 ‘각 개요의 결론’부분을 차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표 9]에서 “타당성” 부분에 만점을 얻은 4명의 경우, 1번 학생의 경우처럼 협업 활동의 결과물을 받채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글쓰기가 부족한 학습자라도 협업 활동 중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상기하고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자신이 독창적인 의견까지는 도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업 활동이 글쓰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협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조의 경우 개별 글쓰기 성적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표 10]에서 보듯 3조에 49, 47점을, 5조에 47점을 얻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조에서 47점을 받은 2번 학생의 경우, 다른 조원들이 35점, 37점과 비교하면 무려 10점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개인의 잠재적 재능을 가진 경우라고 추측된다. 5조가 작성한 개요와 2번 학생의 글을 보면, “유명 연예인의 군 면제 반대”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데, 협업 활동의 결과물인 개요 중 ‘서론’부분만 참조를 하고 대부분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같은 조에 속한 20번 학생은 5조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제에 대한 혼란을 보이고 있고, 21번의 학생의 경우 명확한 자신만의 주장이 없고, 설득할 만한 내용이 부실하였다. 이런 사실은 조별로 협업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번 학생의 경우, 자신의 조가 작성한 개요조차 활용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을 볼 때, 조원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5조는 다른 조에 비해 구성원이 5명이나 되는데, 2명이 타과생으로 처음부터 협업 활동에 불참을 하였고, 조원들 사이도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도 협업 활동이 원만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협업 활동은 개인 글쓰기와 분명한 상관성을 나타낸다. 특히 토의와 토론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인 글을 쓸 때에는 협업 활동의 유무와 참여도 등은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Ⅲ. 맺음말

이번 발표는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물이다. 협업 활동과 관련한 사례연구는 앞서도 밝혔듯이 글쓰기 분야에서는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협업은 개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높은 성취도를 이룰 것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같은 주제를 두고, 조원들끼리 토의를 거쳐 주장하는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속한 팀과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팀과의 토론을 통해서 주장을 단일화 하고, 보다 예각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 실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론과 실체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발표를 통해 얻은 결과는 예측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협업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업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표본을 조사하는데, 조별로 인원수가 많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편차와 성취도 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작업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및 협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향 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에이치북스, 2021.
- 박성민, 「쓰기 전 활동과 글쓰기 능력의 상관성」, 『돈암어문학』 35, 돈암어문학회, 2019.
- 배보은, 「대학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 과정 중심 글쓰기 협력학습을 바탕으로」, 『돈암어문학』 37, 돈암어문학회, 2020.
- 송주현, 「소그룹 활동 중심대학 글쓰기 수업 사례연구-한신대학교‘글쓰기의 기초’ 수업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1, 중앙어문학회, 2017.
- 윤재연,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H대학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5, 국제어문학회, 2020.
- 정희모, 「글쓰기 평가에서 객관 -주관주의 대립과 그 함의-」, 『우리어문연구』37집, 우리어문학회, 2010.

초록

협업 활동을 통한 글쓰기 방법 모형 연구

- H대학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

이정선

본 발표는 2022학년도 1학기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강생을 대상으로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협업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인 글쓰기를 작성하게 했다. 협업은 개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높은 성취도를 이룰 것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이번 발표를 통해 얻은 결과는 사전 예측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업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업 활동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협업 활동, 개요, 동기유발, 개인 글쓰기

별첨 1. 조별 개요작성 (주장형 개요)

조 : 1조		조 이름 : 일석이조
조원 : 1번, 6번, 9번, 15번		
주제문 :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들의 군복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제목 : 개정된 병역법(병역특례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넘쳤던 시기와는 상반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 입대 병력이 감소하며 동시에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다. 국민들은 병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소리를 외치는 이유에는 북한의 위협이나 정치권 압박의 문제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군의 규모를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복무하는 군 복무도 악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또한 발생하는 추세이다. 그중 한 명이 가수 MC몽이다. 2010년 6월 30일, 어금니를 포함해 무려 아홉 개 이상의 치아를 일부러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보도가 OBS 뉴스를 통해 나왔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들의 군 복무 면제를 반대한다.	
본론 1	소주제문	군 복무 면제 기준이 모호하다.
	근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돌 그룹 BTS의 군 면제에 관해서 소속사는 BTS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 끝을 함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소속사의 입장에서 모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샤이니를 통해 증명된다. 샤이니는 각자 다른 군 복무기간으로 발생한 공백기에도 컴백한지 2년 6개월 만에 각종 음악방송에서 6관왕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보였다. 따라서 군대를 간다고 하여서 함께 끝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샤이니처럼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 및 퍼포먼스를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출처	이승록 / SM 스타군단, 그룹->솔로 활약 빛났다... 글로벌 명성 입증 [SM2021결산②] / 마이테일리 / 2021.12.29./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7/0003565603 김미경, 박태진 / BTS, 정작 軍 면제 원한 적 없는데...병역특례법 갑론을박 / 뉴스픽 / 2021.11.25. /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112522000062590&pn=179
본론 2	소주제문	군 면제 대상의 확대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근거	우리에게 가장 흔한 군 복무 면제 대상은 운동선수이다. 운동선수의 경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를 뛰지 않고 쉬면 몸이 굳고 경기를 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2년의 공백기가 생긴다고 하여도 실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연예인들은 휴가나 군 복무 중에도 틈틈이 연습할 수 있지만 운동선수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듯 단순 국위선양을 했다고 연예인들의 군 복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국위선양으로 인해 얻는 국가의 이익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가 더욱 클 것이다.
	출처	공윤선 / 병역부족'대체 복무 줄인다... BTS 군대 가야 / MBC 뉴스 / 2019.11.21. /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610283_29337.html 네이버 지식백과 / “병역법”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6417&cid=46625&categoryId=46625 / 2022.0505.
본론 3	소주제문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다.
	근거	연예인들은 처음부터 국가를 위해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닌 자신들의 돈벌이 및 인기를 얻기 위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 면제는 국가에 경제적 기여를 한다면 병역이 면제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물질만능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등급으로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이는 질 안 좋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변질 될 수 있다.
	출처	고승희 / ‘뜨거운 감자’된 BTS 병역 특혜... 대중문화인 홀대 VS 불공평 / 헤럴드경제 / 2022.04.29./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84514 이승근/ ‘BTS, 운동선수 병역 특혜’ 국방 전문가 “세금 많이 냈다고 앞으로 세금 면제 해주나?”.. “국위 선양하면 훈장주면 돼” <춘추인터뷰> / SPOCHOO / 2022.04.15./ https://news.v.daum.net/v/20220415095449396
결론		사이니와 같이 군대를 갔다 와서도 공백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면제를 제한함에서 군 복무 면제 기준의 모호함이 드러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 면제의 대부분의 대상은 운동선수이고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뛰지 않으면 실력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단순 국위선양을 했다고 해서 연예인들의 군 복무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연예인의 돈벌이 활동을 국위선양이라 보고 군 면제를 해주는 것은 물질만능주의를 초래한다. 결국 이는 사회적 차별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군 복무 면제를 반대한다.

별첨 2. 조별 개요작성 (반박형 개요)

조 : 1조	조 이름 : 일석이조
조원 : 1번, 6번, 9번, 15번	
주제문 :사회적 과장력이 큰 유명연예인들의 군복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제목 : 개정된 병역법(병역특례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과거 베이비붐 세대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넘쳤던 시기와는 상반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 입대 병력이 감소하며 동시에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짐. 국민들은 병력 보충을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민들이 이러한 소리를 외치는 이유에는 북한의 위협이나 정치권 압박의 문제 실감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라도 군의 규모를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복무하는 군복무도 이를 악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또한 발생하는 추세임. 그 중 1명이 MC몽임. 2010년 6월 30일, 어금니를 포함한 무려 9개 이상의 치아를 일부터 발치해서 병역을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MC몽의 병역비리에 대한 보도가 OBS 뉴스를 통해 나옴.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과장력이 큰 유명연예인들의 군 복무 면제를 반대함.
본론 1	상대편 주장: 병역법 적용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이 제외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운동선수, 순수예술인만 병역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반론: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넘쳤던 시기와는 상반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 입대 병력이 감소하며 동시에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단순 국위선양을 했다고해서 연예인들의 군 복무를 면제 하는것은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국가 선양으로 인해 얻는 국가의 이익보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피해)이 더 클 것임. 상대팀의 재 반론: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문제로 대중문화예술인의 군면제를 반대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한 재 반론: 국방부는 작년 11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한 필요가 있다" 며 법 개정예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대중문화인들의 군면제를 반대하는 것은 관련이 있다.
본론 2	상대편 주장: 사회적 과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들의 군복무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다. 유명연예인들이 군복무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에 대한 반론: 연예인 소속사는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해서 군 입대전에 콘서트를 열거나 앨범을 낸다. 또한 군입대후 다시 활동한 샤이니와 같이 군 복무기간으로 발생한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컴백한지 2년반만에 6관왕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보

	임. 따라서 이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 및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군입대로 발생한 손해를 점차 매꿀 수 있을 것이다. 상대팀의 재 반론: 군대에서도 연예인들의 군생활에 대한 부담을 가져 훈련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이익은 GDP 0.2% 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군입대는 오히려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 이에 대한 재 반박: 위에서 언급한 방탄소년단은 모두 다 같이 군대를 가서 활동을 할 수 없을때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일어난다. 하지만 나이와 시기에 따라서 멤버들의 군입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활동을 모두 중단 할 경우는 극히 드물고 멤버 한두명이 빠진다고 해서 큰 손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본론 3	상대편 주장:유명 연예인들의 국위선양 효과 유명연예인들의 국위선양은 충분히 군복무 면제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 군면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줄 수 있다. 상대팀의 재 반론: 활동기간의 공백이 안 생기고 연예인 본인들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보상이다. 이에 대한 재 반박: 군 복무기간의 활동 공백은 군 내의 축제나 예술대회를 통하여 연습할수있기때문에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다.
결론	샤이니와 같이 군대를 갔다 와서도 공백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이유 만으로 군면제를 제한함에서 군복무 면제 기준의 모호함이 드러남. 또한 우리나라에서 군복무 면제의 큰 대상은 운동선수이고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뛰지 않으면 실력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임. 따라서 단순 국가 선양을 했다고 해서 연예인들의 군복무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킴. 마지막으로 국가가 연예인의 돈벌이 활동을 국위 선양이라 보고 군면제를 해주는 것은 물질만능주의를 초래함. 결국 이는 곧 사회적 차별문제로 이어짐.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군복무 면제를 반대함.

토론문

김찬곤¹⁾

이정선 교수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9, 10, 11주, 이렇게 3주에 걸친 협업역량 수업이 한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훤히 그려집니다. 교수님이 세세하고 알뜰히 준비한 덕분에 학생들의 공부 또한 아주 알차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촘촘하게 정리를 잘 하셨기에 궁금한 점이 딱히 없지만 세 가지 정도만 여쭙고 싶습니다.

1. 발표문 7쪽에 보면 식품영양학과 25명을 여섯 조로 나누었고, 5조만 다섯으로 하고 나머지 조는 네 사람씩 짝했습니다. 이 여섯 팀은 서로 힘을 합치고 관리하여 공동개요를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공동개요로 조원 모두 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팀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늘 문제가 되는 게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도 같은 점수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2. 발표문 8쪽을 보면 공동개요 점수 20점, 이 공동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써내는 개인별 보고서가 50점입니다. 두 점수를 합치면 70점인데, 이 점수는 ‘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전체 점수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3. 이 수업은 ‘협업역량’ 수업이라 할 수 있고, 조별로 내는 공동개요는 이 역량에 맞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글쓰기’는 어떤 면에서는 ‘창의’역량에 가깝기도 합니다. 만약 한 학생이 공동개요와 자신이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개인별 글쓰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안내

1. 학회임원 · (2022.01~2023.12)

소개

회 장: 오길주 (경민대학교)

부회장: 김현경 (경민대학교)

감 사: 정명자 (중원대학교)

김연홍 (경민대학교)

고 문: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조월레 (아동도서평론가)

기획이사 - 김장호 (경민대학교)

총무이사 - 김현경 (경인교육대학교)

사업이사 - 강병동 (경민대학교)

출판이사 - 김경희 (가천대학교)

대외협력이사 - 김용환 (주리딩게이트)

국제이사 - 미국_윤재영 (퍼듀대학교),

중국_전금화 (길림대학교)

인도_연규득(크라이스트)

콘텐츠이사 - 윤수진 (송원대학교)

· 편집위원회(2022.01~2023.12)

위원장: 김명석 (성신여자대학교)

위 원: 황선미 (서울예술대학교), 김경희 (가천대학교),

오길주 (경민대학교), 박종진 (연세대학교),

오세정 (충북대학교), 정민경 (제주대학교),

이정선 (호서대학교), 윤수진 (송원대학교),

장정희 (서울대학교), 김현경 (경인교육대학교)

간 사: 김수연 (경희대학교)

-
- 2. 학술대회**
- 제1회: 2015.09.10. 「독서의 학구적 학술성과 열린 활동성」
- 연혁**
- 제2회: 2016.09.24. 「매체 융합 독서교육과 열린 활동성」
 - 제3회: 2017.10.13. 「독서문화콘텐츠의 열린 활동성」
 - 제4회: 2018.11.10. 「그릿 독서와 열린 활동성」
 - 제5회: 2019.10.26. 「멀티플 독서문화 공간과 열린 활동성」
 - 제6회: 2020.09.18. 「놀이와 독서교육의 열린 활동성」
 - 제7회: 2021.10.02. 「온택트 시대 독서의 열린 활동성」
-

**3. 회비 및
입금 계좌
안내**

(1) 회비

- ① 입회비 : 10,000
- ② 학생회원 : 20,000
- ③ 정회원 : 40,000
- ④ 모바일 입회원서 :



(2) 입금계좌

- 은행명 : 하나은행
 - 예금주 : 한국독서아카데미학회
 - 계좌번호 : 211-910013-91104
-

**4. 학회
연락처
안내**

- 학회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충의관 211호 오길주 교수 연구실
 - 학회 홈페이지 : <http://www.acagora.or.kr>
 - 학회 이메일 주소 : acagora@naver.com
 - 학회 전화번호 : 031) 828-7166
 - 간사 : 윤지아 (010-6893-1190)
-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입 회 원 서

NO.

(사진)

성 명 :

생년월일 : . . .

연 락 처 : - -

E-mail : @

현 주 소 : | 우 - |

근 무 처 : | 우 - |

○ 학력 및 사회 경력 :

•

•

○ 현재 소속 및 활동 상황 :

•

•

○ 저서 및 논문 :

•

본인은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회칙에 동의하며, 입회를 희망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명 : (인)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장 귀하



원고 모집

한국 독서 아카고라 학회(韓國 讀書 아카고라 學會)에서 <독서아카고라 연구> 학회지 4호 원고 모집을 합니다.

한국 독서 아카고라 학회(韓國 讀書 아카고라 學會)의 ‘아카고라 (ACAGORA)’는 아카데미(ACADEMY)와 아고라(AGORA)를 합성한 약어로서,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성 (academy)과 독서 운동의 열린 활동성(agora)을 공히 표방한 것입니다.

본 학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계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8일 창립총회를 거쳐, 7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7회 학술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 1회 독서의 학구적 학술성과 열린 활동성
- 2회 매체융합 독서교육과 열린 활동성
- 3회 독서문화콘텐츠의 열린 활동성
- 4회 그릿(GRIT) 독서와 열린 활동성
- 5회 멀티플 독서문화 공간과 열린 활동성
- 6회 놀이와 독서교육의 열린 활동성
- 7회 온택트 시대, 독서의 열린 활동성
- 8회 문해력과 독서교육의 열린활동성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본 학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옥고를 모아서 <독서아카고라연구> 4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연구 분야

-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제
-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주제 및 내용을 갖춘 논문

2. 논문 제출기한

- 원고 마감 : 2022년 9월 30일(금)
- 학술지 간행일 : 2022년 10월 31일

3. 논문 분량

- 지정된 양식을 기준으로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국문, 영문초록 포함)

4. 투고 자격

- 석사학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연구자, 활동가

5. 논문 투고처

- 제출 방법 : 이메일 acagora@naver.com

6. 제출서류

- 논문투고신청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본문파일,
KCI 유사도 검사결과지(<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6. 회원 가입 후 연회비 입금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하나은행, 211-910013-91104

7.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E-mail : acagora@naver.com

8. 학회에 대한 정보와 논문검색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acagora.or.kr/>

후원

어린이
문화재단

개꾸로 수학

보보

코레카 숲 쉬는 도서관

리딩게이트



강인하는 아이들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제8회 학술대회 자료집

문해력과 독서교육의 열린 활동성

- 발 행 일 2022년 9월 24일
- 발 행 처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11618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충의관 211호
홈페이지 : <http://www.acagora.or.kr>
- 발 행 인 오길주